

K-콘텐츠의 여성 서사 전략과 경쟁력 진단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4:00~17:00

장소 센터포인트 광화문(유튜브 중계병행)

주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후원  방송문화진흥회

「K-콘텐츠의 여성 서사 전략과 경쟁력 진단」 세미나

○ 일시/장소 : 2022년 9월 16일(금) 14:00~17:00 / 센터포인트 광화문(유튜브 중계병행)

○ 주최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 후원 :  방송문화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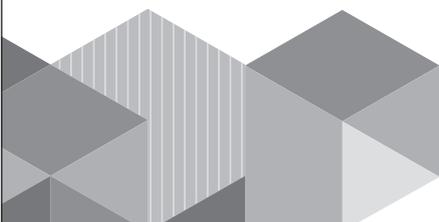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10	개회사 : 이경숙(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사회 : 유세경(이화여대)
1부 14:10~15:00	[발표 1]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와 여성서사: <마인>과 <구경이>를 중심으로 - 정영희(고려대) · 한희정(국민대) 토론 : 이소현(한양대) · 홍남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부 15:00~15:50	[발표 2] 여성 없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 BL(Boys' Love) 콘텐츠의 관계성 생산 전략: 왓챠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 장민지(경남대) 토론 : 오현주(한국콘텐츠진흥원) · 이설희(용인대)
15:50~16:10	휴식
3부 16:10~17:00	[발표 3] 누가 여성 서사를 소비하는가? - 김숙((주)컬쳐미디어랩) 토론 : 강보라(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 정수영(MBC)
17:00	폐회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와 여성서사: <마인>과 <구경이>를 중심으로

정영희(고려대)
한희정(국민대)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와 여성 서사: <마인>과 <구경이>를 중심으로

정영희(고려대) · 한희정(국민대)

1. 서론

어느 한 시기 시기마다 사회적으로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콘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은 압도적이다. 즐겨보는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그들의 ‘대사’가 시청자의 삶에 적극 개입하면서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는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문화적 생산물이다(김훈순, 2013).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여성 재현이 어떻게 현실을 재구성하고, 특정 시기의 그러한 재현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재현이란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의미를 생산하기 위해 폭넓게 기호를 배열하는 특별한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그 과정에 언어가 이용된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현이란 첫째 사람, 사건, 경험 등 우리가 폭넓게 사물의 세계라고 여기는 것, 둘째 우리 머릿속의 개념적 세계, 셋째 언어로 처리되어 이 개념들을 ‘의미하거나(stand for)’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호 등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사물의 질서를 연결함으로써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는 항상 변하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의 코드는 변화하게 된다. 언어는 물질세계의 ‘실제’ 대상뿐만 아니라 판타지, 욕망, 상상을 위한 개념들을 기호를 통해 전달한다(Hall, 1997, 61-62). 미디어 텍스트는 현실 세계, 추상적 이념들, 또는 가능한 세계를 재현하는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텍스트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변천을 겪기 마련이고 따라서 재현은 결국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공간이다(Taylor & Willis, 1999; Mikos, 2008/2015).

텔레비전 드라마는 대표적인 서사 픽션(narrative fiction)이다. 서사(narrative)란 시대, 지역,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의 가장 보편적 소통방식이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김훈순, 2013). 드라마의 다양한 여성 인물 재현은 새로운 여성 서사를 낳는다. 여성 서사란 무엇인

지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김강은, 2020)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변화의 큰 틀은 대다수의 미디어 콘텐츠에서 보편 남성 서사의 타자나 주변부 인물로만 재현되어 온 여성 캐릭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여성 캐릭터로서 내러티브(서사)를 주도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러티브 안에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재현, 여성들 간의 연대, 젠더 이분법을 초월하는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재현 등을 통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여성 캐릭터와 여성 서사가 두드러진다고 평가받은 드라마 두 편, <마인>과 <구경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드라마는 앞서 나열한 여성 서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실천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수용자들의 사회적 경험에 근거하여 비로소 다시 생산된다. 그러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경험의 내용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러한 재현방식은 어떻게 의미 생산에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Mikos, 2008/2015, 35-37).

2. 이론적 논의

1)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

매스미디어는 여성을 정형화(stereotype)된 이미지로 묘사한다고 지적되어왔다. 핑그리, 호킨스, 버틀러와 페이지리(Pingree, Hawkins, Butler & Paisley, 1976)는 매스미디어가 여성을 묘사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수준은 여성을 성적 대상물이나 가녀린 희생자로, 두 번째는 여성을 아내/워킹맘 비서/점원/선생/간호사로 묘사하지만 여성적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이며, 셋째는 변호사나 건축가 같은 전문직 여성이지만 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이다. 넷째, 여성은 비로소 남성과 동등하게 묘사되며 다섯 번째 수준은 성별로 인물이 판단되지 않는, 정형화된 성별 역할에서 벗어난 수준을 말한다. 1970년대 연구에서 핑그리 등은 미디어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한다. 한국의 1970년대 일일 드라마에서도 여성 재현을 통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동시에 근대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이중성이 확인되었다. 국민국가 공동체를 중시했던 당시의 대중문화 형성의 기제로서 텔레비전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 드라마에 대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드라마 내에서 도발적이고 저항적인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제재가 가해졌다(이종임, 2104).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이미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드라마와 여성에 관한 연구가 출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재현 및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표상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도 드라마가 여성을 정형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여전히 젊은 여성의 몸은 사회적 성공을 위한 육체자본으로서 재현되고, 타고난 아름다움은 여전히 우위의 가치로 설정되었다(홍지아, 2010). 전문직 여성일지라도 남녀 관계에서는 소극적이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신데렐라 서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김훈순, 김미선, 2008). 정지은(2014)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상연하 커플이 등장한 드라마의 서사를 분석하여, 여성에 대한 묘사는 진일보하였지만 남성이 백마 탄 왕자님으로 재현되는 것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남성에 대한 고정된 성역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유는 드라마가 여성 장르로서 여성의 판타지를 채워야 한다는 상품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정지은, 2014).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외연적으로뿐 아니라 서사구조에서도 탈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최현주, 2008)도 있었다.

남성상에 관한 젠더 관념은 더 변화가 없었다. 방송 3사의 멜로드라마 남자주인공의 직업으로 '재벌'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력이 높은 것으로 재현되었다(박은하, 2013). 전문 능력 면에서도, 여성 검사의 경우 미모를 갖추었지만 능력이 모자라거나, 능력은 있지만 외모는 별로인 인물로 묘사되고, 남성 검사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인간으로 재현되었다(우린, 2010).

2022년 현재, 텔레비전 드라마와 여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여성주의적 관점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여전히 성(젠더)차별적이라는 주장, 전형적인 젠더 경계가 희석되었다는 평가(정영희, 장은미, 2015), 탈젠더적 외연으로 성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주장하는 세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관점을 기존 연구들과 공유하면서 <구경이>와 <마인>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여성, 여성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텔레비전 드라마와 모성

근대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성별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에 머물며 자녀양육에 집중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존재로,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임금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실현되어왔다. 그 결과 남성의 급여로만은 생활할 수 없었던 노동자 계층의 여성에게는 일과 가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중산층의 여성에게는 바람직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자녀 양육의 결과에 대해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 책임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모성에 대한 규정은 사회·역사적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모성 및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해지는 어머니의 모습만 묘사되어왔을 뿐, 어머니

노릇의 막중한 책임감과 그것이 어머니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어머니 노릇의 이면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어머니를 어떻게 재현하는지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한 분석에서 알 수 있다. 정영희(2020)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KBS2, 2019)이 모성을 어머니(여성)와 연결된 절대적 가치로 표현하고, 어머니에게 모성은 본능이고 운명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재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한 모성의 실천 과정은 도덕적이고 순결해야 하며, 자식의 성장 단계에 맞게 자식의 요구에 맞춰서 실행되고 성숙해간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드라마는 그러한 모성을 자신의 아이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구성원에게로 확장했고, 여성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보았다. 이 드라마는 어머니의 여성성(성)을 배제했던 과거의 드라마와 달리 모성과 여성성(성)의 공존이 가능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여성성(성)보다 모성을 우선적인 가치로 재현한 점, 아이에게 모성 결핍의 대가는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성에 대한 환상을 강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영희, 2020). <구경이>와 <마인>에는 사회적 통념상 어머니여야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크게 출산자, 비출산자, 양육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분석하여 여성, 어머니, 모성, 사랑이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분석 대상은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 가운데 여성 캐릭터의 클리셰(cliché)를 깨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시도하여 여성 서사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 두 편의 드라마, <마인>(tvN, 2021)¹⁾과 <구경이>(JTBC, 2021)²⁾이다. 이 두 드라마의 주요 여성인물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차이가 있다. <구경이>의 구경이와 <마인>의 정서현이 특히 그러하며, 이 중 정서현은 성소수자로 표현된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성소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드물었으며, 주변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 캐릭터는 죽거나 사랑에 실패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 성소수자 캐릭터에 비교적 우호적인 드라마에서조차, 열린 결말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성소수자의 사랑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 점에서 보면 여성간의 사랑을 인정한 드라마 <마인>은 매우 특별하다. 가부장적 재벌가에서 두 며느리가 가부장적 질서에 도전하며 각자 '나의 것(mine)'을 찾아가는 과정(김미라, 2021)을 그린 이 드라마는 여성에 대해, 여성들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라고 판단했다.

1) 2021년 5월 8일~6월 27일까지 16부작으로 방영되었으며, 최고 시청률은 10.5%이다(닐슨코리아 기준).

2) 2021년 10월 30일~12월 12일까지 12부작으로 방영되었으며 최고시청률은 2.7%이다.

3)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비극적 재현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드라마에서도 반복되어서 "레즈비언 캐릭터를 그만 죽이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이 팬들을 중심으로 벌어질 정도였다(박주연, 2019.5.6.).

<구경이>는 <마인>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범죄수사극은 전통적으로 남성 장르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여성은 수사관이든 범죄자든 조력자나 주변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 드라마는 이야기 초점이 폭력과 범죄이므로 여성은 무기력한 희생자, 혹은 죽을만한 타락한 자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장르 관행과 비교할 때, 드라마 <구경이>는 조금 특별하다. 수사관, 범죄자, 권력자(부패 세력)가 모두 여성이다.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범죄 수사 드라마에서 여성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주요 서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특히 등장인물, 주요 인물 간의 관계, 주요 인물들의 역할이 상호 교차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편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캐릭터 및 서사의 특이성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4.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와 여성 서사

<구경이>와 <마인>에서 주요 여성인물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일상적으로 재현되는 여성캐릭터와는 크게 다르다. <구경이>에서 구경이는 지저분한 술고래, 비사회적인 천재, 은둔형 외톨이, 게이머 등 전통적으로 남성인물을 표현하는 특징을 통해 재현되었다. 여성성이 강조되지 않은 새로운 여성상이 남성적 기호를 통해 재현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이>는 전형적인 젠더 규범에서의 표식을 성별로 교차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 면이 있었다.

반면 <마인>의 정서현은 조금 달랐다. 정서현의 외양은 젠더초월적인 시각적 기호를 통해 표현되었으며, 공적 역할(기업 경영)을 중시하면서도 타인에 공감하고 정서를 공유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기업 전문가로서 경영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 젠더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남성의 특징이 활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는 온전히 남성 인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탈젠더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마인>의 서희수는 여성 캐릭터의 젠더 전형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서현을 구성한 캐릭터 특징을 보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여성에 대한 재현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드라마에서는 권력자이거나 롤모델로 삼을 만한 남성이 없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⁴⁾ 따라서 남성을 두고 여성 간에 경쟁할 이유가 없었다.⁵⁾ 그 결과 여성들의 투쟁은 드러낼 수 없는 사랑(동성애)으로 인한 갈등, 남성 인물이 주도하는 패악과의 싸움, 어머니 자리를 둔 경쟁에 집중되어 있었다. 텔레비전

4) <마인>의 한희정은 후계 구도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드라마 대부분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극 후반부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후계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나 드라마의 서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5) 서희수와 강자경의 경쟁은 사랑의 상대인 남성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사이에 둔 갈등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드라마의 전형적 서사 중 하나인 로맨스를 차지하기 위한 여성간의 경쟁은 없었다.

하지만 기존의 전형화된 젠더 인식 및 규범을 완전히 초월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주요 여성 인물은 재현되는 방식이 기존의 드라마와는 달랐지만, 주변 인물들은 여전히 정형화된 젠더틀 속에서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통해 이상적인 모성 및 사랑받는 여성상의 가치가 발현되고 있었다.

1) 여성인물에 대한 표현

(1) <구경이>의 여성들

① 구경이(43세, 전직 경찰/보험 수사관, 게이머, 사별)

구경이(이영애 分)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탐정이다. 경찰이었으나 일련의 과정을 겪고 보험회사 직원인 후배 나제희(곽선영 分)의 객원 보험 조사원이 되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남편(최영준 分)이 여제자의 죽음으로 인해 의심을 사자, 경찰이던 구경이는 남편을 직접 조사하였다. 아내의 의심을 받는 남편 장성우는 자살하고 구경이는 자신의 의심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자책하면서 남편의 사건을 떠올리면 공황장애 증세도 보인다. 남편이 죽은 후 경찰도 그만두고 히키코모리 은둔형 게임 폐인으로 쫓지도 않고 술에 찌들어 산다. 간간히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보험 조사일로 생계를 꾸려나 가다가 K가 저지른 살인사건들을 만나게 된다.

구경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을 표현하는 특징을 통해 묘사되었다. 그녀는 전문영역에서 뛰어나지만 트라우마로 인해⁶⁾ 은둔형 폐인으로 살아가는,⁷⁾ 게임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이며,⁸⁾ 제스처와 말은 거칠지만⁹⁾ 단순하고¹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는 정의로운 ‘츄데레’이다.¹¹⁾ 감지 않아서 냄새나는 머리에는 파리가 꼬이고, 샴푸/린스/바디워시를 구분하지 못하여¹²⁾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된다.¹³⁾ 구경이의 방은 항상 어둡고 지저분하며, 종종 술병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¹⁴⁾ 이러한 인물

6) 여고생 사망사건에 관해 구경이가 남편을 의심하며 조사했는데, 그 후 남편이 자살하였다.

7) 외출한 지 오래되어 자기 집 도어락 비번도 잊어버렸다.

8) 아이디는 ‘애플보이캣’이다.

9) 사망한 인물 고담의 조각상에 usb가 감춰진 것을 알고 찾는 과정에서 일단은 조각상을 먼저 깨고 일을 시작하였다(10회).

10) 보험 관련 수사를 해달라는 후배 나제희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게임에 최적화된 새 컴퓨터가 세팅되자 단순히 그것에 반하여 요청을 받아들인다. 기존 컴퓨터를 철거하는데,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온다.

11) 함께 게임을 하던 ‘멜론머스크’라는 게이머가 ‘이제 죽을 수 있다. 살 이유가 없다, 빚 3억이고, 누나가 사라져달라고 했다.’며 자살을 암시하자 직접 찾아가서 자살을 막았다.

12) 욕실에 번호 붙여둔 제품이 있고 1 Shampoo, 2 Rinse, 3 Bodywash으로 쓰여 있으나 구경이는 바디워시로 머리를 감는다(6회). 경찰이었을 때의 제복 차림의 깔끔함과 여성스러운 말투와 비교하면 캐릭터의 이질성이 크게 부각된다.

13) 벌레가 꼬이는 감지 않은 머리에 산타가 벌레 퇴치기를 부리고, 서랍마다 나오는 과자 봉지 쓰레기를 산타가 청소한다(6회).

14) 구경이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는 많은데, 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시 해장국 먹으면서 ‘소주가 있어야 한다’고

의 특성은 ‘술 좋아하는 망가진 정의로운 천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기표이다.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곧 남성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경이에게서는 젠더초월성이나 전복보다는 남성 흉내 내기의 특징이 더 강하게 인지되었다. 따라서 낮은 시청률을 통해 판단하면, 시청자들은 캐릭터에 공감하거나 감정이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K(송이경, 1999년생, 연쇄 살인자)

K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의사였던 부모를 잃었다. 부부싸움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하였다. 캠핑장에서 그 사건 후, 이경은 산속에서 1주일을 혼자 지내다가 극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이후 이모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모의 보호 하에 성장했다. 이경의 첫 살인 희생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봉백고의 경비아저씨다. 이경이는 두뇌는 비상하나,¹⁵⁾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¹⁶⁾ 정신적/정서적으로 불안하고¹⁷⁾, 여성 대상 범죄자에 엄중¹⁸⁾ 연쇄살인자이다. 부모는 잃었지만 극진히 살피는 이모가 있다. 연극 대본을 양장으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기이한 취향을 가졌으며¹⁹⁾ 몸싸움에도 강하다. 이경이는 ‘죽일 놈들만 골라 죽이는 살인자’(3회)이다. 불법동영상 관련자, 아동학대자, 동물학대자 등을 살해하는데, 남성만을 타깃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²⁰⁾ 살해된 자가 대부분 남성이다.²¹⁾ 이경의 캐릭터와 극중 역할을 살펴보면, 캐릭터의 성격이나 외모에는 여성스러운 꾸밈이 있지만 젠더 전형성도 전복성도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며,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는 법이 관대해서도 안되며, 법의 심판을 벗어난 경우 다른 방식으로라도 엄격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③ 용국장(용숙, 봉사단체 이사장, 막후 권력자)

용국장은 큰아들 허성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일을 진행하는 방식은 범죄 드라마에서의 탐욕스러운 남성의 행동과 유사하다. 봉사단체인 ‘푸른 어린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외양은 수더분해보이나 정계를 휘두르는 권력자다. 목적인 바에 맞게 전략을 구성하며, 물리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움직

주장하고(3회), ‘진짜 위스키’ 입에 감동하며(3회), 맥주를 패트병째 마신다(6회).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 술을 마시면 해결되고 주종을 가리지 않으며, 마시는 시간도 가리지 않는다. 차의 조수석에는 술이 비치되어 있다. 한 번의 실패 후 다시 게임을 시작한 구경이는 ‘술 끊었다’라고 말한다(8회).

15) 살인에 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독극물과 폭발물 제조에도 뛰어나다.
 16)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동안 5살 이경이는 자동차 안에 홀로 남겨졌었다.
 17)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이경의 이모도 이경이 정신과 상담을 잘 받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18)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한 의대생이 약하게 처벌받고 다시 범죄를 시도하자, 다양한 화학 약품에 연속적으로 노출되게 하여 살해하였다. 하지만 때마침 살인을 시도했던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살인범으로 몰리자 ‘내가 했어!’ 영상을 내보며 그 여성을 보호하였다(3회).
 19) 연극에서 살해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20) 아동을 학대한 어머니를 죽이기도 했다.
 21) 학교 수위(고양이 살해범), 김민규(효창바이오 사원), 박규일(몰카범), 고담(변호사), 광기자, 허헌태 등이 있다.

이는 카리스마가 있다. 구경이를 택시에서 납치해서 끌고 오게 하여 자신의 아지트인 목욕탕(마음탕)에서 처음 만났다. 이 장면에서는 남성들의 사우나 미팅을 상상하게 한다. 연쇄 살인범인 'K'를 잡자고 구경이에게 먼저 제안했으나 걸림돌이 되자 제거하라고도 지시한다. 용국장의 두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말 그대로 꼼짝 못하는데, 큰 아들은 용국장에게 뺨을 맞고 울고, 아이처럼 안기기도 한다. <구경이>에서 용국장은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한 어머니로서, 부정적으로 권력과 가족을 통제하는 대리 남성의 여성상을 표상한다.

④ 나제희(구경이 경찰 후배, 보험 조사팀 팀장)

나제희는 구경이의 경찰 후배로서, 지금은 NT생명의 보험 조사관으로 B팀 팀장이다. 남편은 없고,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가 딸(나나)을 돌본다. 선배 구경이의 심리를 잘 알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잘 안다. 야망이 있고 권력 핵심으로의 이동을 꿈꾼다. 나제희는 숏커트에 수트 차림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인물을 통해서 젠더 규범이나 이분법적 전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성으로부터 독립, 아버지가 손녀를 돌보고 자신이 가장인 환경 등에서 전형적인 젠더 규범 묘사에서 벗어나 보인다.

(2) <마인>의 여성들

① 서희수(전직 배우, 주부, 재벌가 둘째 며느리, 하준이 엄마)

서희수를 표현하는 한마디는 '모성'이다. 양육 모성이 출산 모성에 못지않음을 실천하고, 결과적으로는 출산자(생모)를 이겨낸다. 배우로서의 커리어보다 '하준이 엄마'라는 타이틀을 더 강조한다.²²⁾ 남편이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하준이를 '내 아들'이라고 강조한다. 몇몇의 에피소드에서 배우 서희수로서는 견디고 넘어가지만, 하준이 엄마로서는 절대 참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남편인 한지용이 그룹의 대표이사 자리를 형에게 양보하자, 섭섭해한 이유도 아들 하준이 때문이었다. 하준이가 성장하여 기업경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 처음부터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준이가 서희수가 생모가 아닌 것을 알고 나서 사라졌을 때, 서희수는 임신 상태였으나 하준이를 찾기 위해 무리해서 비오는 밤, 차를 몰고 나간다. 생모(강자경)가 위치 추적기를 통해 아들을 찾는 동안, 서희수는 본능적으로 힙합을 좋아하는 하준이가 공연장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찾아낸다. 누가 보아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엄마다. 미혼모 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한다.

엄마로서의 희수는 친아버지인 한지용이 하준이를 때리려고 한 순간에서 축약적으로 알 수 있다.²³⁾ 양육자 엄마인 서희수는 출산적 부모인 한지용과 강자경으로부터 하준을 지키기 위해 '내 아들'임을 반복

22) 드라마 후반에는 배우로 복귀하여 개인의 커리어를 다시 이어간다.

23) 서희수는 한지용에게 "누구도 자신의 아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안 참아"라고 말한다.

하여 선언한다.²⁴⁾ 기억상실 연기의 이유를 물었을 때, “안 그래도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준이가 충격 받을 텐데,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충격을 받겠냐. 그래서 진실을 숨기기 위해 기억상실증 연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힌다. 생모인 강자경은 이 말에 감격하여 서희수에게 ‘하준이의 엄마는 서희수 당신’이라고 엄마의 자격을 부여한다.

서희수는 여성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해왔다. 순위 동서인 정서현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강자경에게도 그녀의 ‘선을 넘는’ 행동을 보기 전,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우호적으로 대했다. 남편 한지용의 악행을 알기 전까지는 그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여’배우라는 전직, 하준이를 위해 가정에 머문 선택, 미혼모 시설 봉사활동 등 여러 면에서 서희수는 여성성과 여성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시키는 인물이라고 판단되었다.

② 정서현(재벌가의 첫째 며느리이자 실세, 서희수의 순위 동서, 성소수자)

재벌가 출신인 정서현은 효원가에서 기업과 집안 모두에서 실세이며²⁵⁾ 시아버지인 한석철 회장이 후계자로 인정할 만큼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서현의 남편 한진호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물로서 술, 도박(복권), 여자를 좋아하는 ‘문제적’ 인물²⁶⁾이며 배다른 동생인 지용과 비교되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한회장은 정서현이 아들 진호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이든 이혼만 하지 않으면 효원의 황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자주 효원의 사업과 후계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사랑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사생활은 불행하다. 무능하고, 아이도 있고, 재혼인 한진호와 결혼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서희수가 하준이를 ‘내아들’이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정서현과 수혁의 관계에서는 새어머니임이 강조된다. 출산모성과 양육모성 모두와 거리를 둔 인물이다.²⁷⁾ 하지만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다르다. 순위동서인 서희수와 협력적, 우호적, 연대적 관계를 이루고, 최수지와는 연인관계이다. 또한 시동생인 한지용의 악행을 알고난 후에는 한지용으로부터 희수와 하준, 강자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에게는 정서현이 큰언니이자 큰 보호자이다.²⁸⁾

24) 한지용의 죽음과 관련된 곤란한 상황에서 기억상실인 척 연기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하준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 하자, 몸을 사리지 않고 차길로 뛰어들어 하준을 안으며 “엄마가 네 몸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한다고 그랬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하준과 형사에게 기억상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받고 결국에는 연기임이 탄로 난다.

25) 한석철 회장은 정서현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굴직한 사업(전자와 EnM)의 경영권을 물려주었고, 집안에서도 시어머니 양순혜보다 실세이며 고용인 관리, 인사권 등을 행사한다.

26) 그러나 한진호는 아내가 성소수자임을 고백하자, “결혼 기간 동안 바람을 피운 자신보다 낫다”면서 정서현 자체를 인정해주고 교통사고로 다친 외로운 처남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준다.

27) 의붓아들 한수혁과 메이드인 김유연이 서로 호감을 가진 것을 알고 유연을 내쫓았으나, 10화에서 둘의 데이트를 미행했던 김성태(남자집사)에게 그 둘이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다행이다. 행복하면 된 거다.”라며 둘 사이를 지지한다. 이 장면에서는 아들이기에 행복해야 한다기보다는, 사랑에 실패한 자신을 대입하여 사랑을 이루려는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28) 서희수가 강자경이 하준이 친모가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하자, 서희수 몰래 하준이의 친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다. 또한 한지용이 희수를 속인 것을 알고 희수에게 털어놓으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서현이 성소수자임을 알고 있는 한지용이 되레 협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희수를 찾아가 진실을 말한다. 서희수가 그 충격으로 유산하자, 유산 사실을 감춰주고 한지용과 맞서도록 도왔다.

③ 장자경(본명 이해진, 하준이 튜터/생모)

장자경은 서희수 아들의 생모이며, 신분을 세탁하여 효원가에 튜터로 들어왔다.²⁹⁾ 한지용과 연애 중 임신한 채로 효원가로 왔으나 양순혜는 별장에서 아이를 낳게 했다. 교통사고로 죽은 인물로 되어 있으나, 아들과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효원가로 들어왔다. 튜터로 들어오기 위해 양순혜에게 한지용이 아니라 양순혜의 친아들이 그룹 후계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거래를 했다. 처음에는 하준이와 한지용의 아내 자리 모두를 탐내었으나, 한지용의 악행과 희수가 하준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준이 엄마는 서희수'라고 최종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하준은 생모와 양육모 모두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아이 러니하게도 어린 시절 생모와 양모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드라마의 빌런인 한지용이 원했던 큰 그림이다. 강자경과 서희수는 남성을 두고 여성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을 사이에 둔 경쟁 구도를 보여준다.

④ 엠마(본명 백설화, 수녀, 요정에서 일한 경력)

엠마 수녀는 주요 등장인물 중 한명이자, 관객에게 드라마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여 들려주는 <마인>의 내레이터이다. 엠마는 정서현과 서희수의 조언자이면서 관객에게는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제공자이다. 드라마 전반부에는 서희수의 인맥으로 재벌가의 여성들의 성격모임을 이끌고 정서현, 한진희 등에게 조언하는 정신적 지주처럼 보이지만, 후반부에서는 한석철 회장과 한지용, 지용의 생모인 김미자와 친분이 있음이 드러난다. 엠마는 <마인>의 주요 인물을 서로 연결하며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정서현과 서희수가 '나의 것(마인)'을 찾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엠마와 상담하여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으면서 두 여성은 '나의 것(마인)'을 찾아내었다. 극 후반에서 서희수는 '나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엠마의 질문에 '나 자신'이라고 답하고, 정서현은 "그 사람은 자매님께.. 어떤 존재인가요?"라는 엠마의 질문에 대해 "...마인, 내 거요."라고 답하는데, 이를 통해 엠마는 두 여성이 자신과 자신의 것을 찾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텔레비전 드라마 속 남성들

① <구경이> 속 남성인물

<구경이>의 남성들은 모두 조력자이거나 범죄자 혹은 주변인이다. 구경이 주변 남성 인물로는 '산타', '경수'가, K주변에는 '건욱', 용국장 주변에는 '김부장', '허성태', '허현태'가 있다. 산타(본명 한광욱)는 구경이의 게임 파트너였는데, 게임 속에서 서로의 캐릭터를 여러 번 구해주었다. 보험 수사활동을 시작한 구경이는 산타를 조수로 채용했는데, 눈치가 빠르고 행동력이 좋다. 수사 조수이긴 하나 사실상 더럽

29) 드라마 후반에서, 진짜 강자경은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지저분한 구경이 주변을 청소하고 일정을 챙기며 일종의 비서처럼 행동한다. 문자 텍스트를 읽어주는 스마트폰의 기계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말을 하지 않는데, 이는 위장이며 병어리는 아니다(7회). 극 후반에서는 구경이 남편이 자살한 계기가 된 일련의 사건에서 산타가 상대 여학생의 애인임이 밝혀진다. 경수는 구경이가 함께 일하게 된 보험 조사단 나제희 팀의 팀원이다. 경찰이 되고 싶었으나 실패하고 보험 조사원이 되었다. 구경이와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면은 있으나 상관인 나제희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협조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구경이를 돕고 신뢰를 얻는다.

연쇄 살인범 송이경, 즉 K 주변에는 조력자인 건욱이 있다. 건욱은 K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로, K는 건욱의 아버지(K학교의 수위이자 고양이 학대자)를 건욱을 대신해 살해해주었다. K의 첫 번째 살인이기도 하다. 건욱은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증오했으나, 혼수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차마 죽이지는 못했는데 K가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건욱은 보안업체에서 CCTV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K가 잡히지 않게 동선을 조작하거나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K의 살인현장을 뒤처리했다. 하지만 건욱이 보안업체의 동성 동료(대호)와 사랑하게 되면서 K와 갈등하게 된다.

용국장 주변에는 수족처럼 일을 돕는 김부장이 있는데, 그는 인상은 소탈하나 필요하다면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 용국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허드렛일을 도맡는다. 용국장의 첫째 아들 허성태를 차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허성태는 용국장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마마보이다. 둘째 아들 허현태는 용국장이 대표인 봉사단체의 공식 홍보대사이자, 국민 연예인급으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여성 편력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었으며 용국장은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의 미래를 망칠까봐 염려되어 철저하게 행동을 통제한다. 드라마의 후반에서는 이 드라마의 주요 사건(이준현 사망 사건)의 발단이 된 장본인임이 밝혀진다.

<구경이> 속 남성인물(산타, 경수, 건욱, 김부장, 허성태, 허현태)들은 누구도 권력자가 아니며, 조직에서의 지위나 개인 인격상 롤모델도 아니다. 드라마 <구경이>는 전형적이지 않는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 여성 서사를 구성하려고 했다면, 그 시도는 권력자 남성, 이상적인 남성인물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② <마인> 속 남성인물

<마인>에서 주요 남성은 서희수 남편(한지용)과 의붓아들(한하준), 정서현 남편(한진호)과 의붓아들(한수혁), 메이드(김성태), 정서현의 시누이 남편(박정도), 정서현/서희수의 시아버지(한석철, 그룹회장)이다.

한지용은 그의 형에 비해 경영능력이 있고, 아내에게 다정다감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이 드라마 최고의 빌런이다. 생모의 사랑도 양육자의 사랑도 받지 못했으며,³⁰⁾ 서희수와 결혼 전에 강자경과의 사이에

30) 배우인 엄마(김미자)가 다른 연인과의 사이에서 한지용을 임신한 상태로 한회장에게 왔기 때문에 효원가의 혈통이 아니다. 김미자는 한회장의 친아들이 아닌 한지용을 방해꾼으로 인식하며 구박하였고, 한회장의 부인 양순혜 또한 자신의 친자식(한진호)보다 영리하고 능력있는 한지용을 경계하였다. 양순혜는 한회장이 죽은 김미자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김미자의 아들인 한지용을 더욱 못마땅해했다.

서 혼외자 아들을 가졌다. 강자경을 튜터로 들어오게 한 후 불륜을 이어갔으나, 강자경이 하준이의 엄마 자리를 되찾겠다고 하자 매몰차게 대한다. 강자경이 하준이의 튜터로 들어온 것을 용인한 이유는 하준이가 생모와 키워준 엄마 모두에게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매우 크고³¹⁾ 모성 결핍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혼외자 콤플렉스가 강한 인물이다. 인정받기 위해 완벽한 인물을 연기하나, 한회장이 정서현을 후계자로 염두에 둔 것을 안 순간부터 태도를 바꾼다. 또한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여 투견처럼 사람싸움을 시키고 그것을 즐기다가, 살인정부의 범죄까지 저지른다. 아내(서희수)와 하준이 생모(강자경) 모두에게 악한이며, 그들이 연합하여 하준이를 뺏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혈연)에게 친부로서 소홀하지 않으나, 강자경에게 서희수의 살해를 사주하는 등 남편 혹은 연인으로서의 악한이다.

한진호는 정서현의 남편이자 한수혁의 아버지다. 어릴 때부터 동생과 비교되며 무능함으로 인해 질책 받았다. 경영인으로서의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첫 부인은 한진호의 무능과 여성 편력을 참을 수 없어서 수혁이를 낳고 가출하였다. 두 번째 아내 정서현이 한진호와 결혼한 것은 한진호에게 이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의 부담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레즈비언인 정서현은 한진호가 바람을 피워도 그것이 그의 탈출구라고 생각하며 개의치 않는다. 술에 취해서 메이드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정서현에게 뺨을 맞고 알코올 중독 치료소로 끌려가기도 한다. 비교당해온 한지용에게 열등감은 있으나 적대적이지는 않았는데 한지용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님을 알게 된 후에는 그로부터 효원을 지키려고 나름 애썼다.³²⁾ 진호는 메이드인 김성태에게 한지용을 죽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성소수자인 정서현이 자신의 비밀을 밝히면서 원한다면 이혼해주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했다. 지용의 죽음 직후, 김성태가 떠나자 아쉬워하는데, 그 이유는 성태와는 함께 탕에 몸을 담근 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임으로 온 남성 메이드에게도 같이 목욕을 하자고 제의해서 당황시키는데, 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운 인물의 특징으로 보인다.

한수혁은 한진호의 아들이자 정서현의 의붓아들이다. 생모는 수혁을 출산 후 가출하고 이혼했다. 유학 후 돌아왔고, 기업 경영은 원하지 않는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들어간 메이드 유연의 방에서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유연은 수혁의 침대에서 잠을 잘 잘 수 있어 서로 방을 바꿔서 자기에 이른다. 정략 결혼 대상인 아립과 약혼할 예정이었으나 사랑 없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약혼을 파투내었고, 가족의 반대에 무릅쓰고 메이드와 동거를 시작했다. 정서현이 그런 한수혁을 설득시켜 집으로 데려왔고, 한수혁은 정서현의 지지를 받으며 메이드 김유연과 결혼하였다.³³⁾ <마인>에서 비교적 합리적 캐릭터

31) 핏줄에 대한 집착은 서희수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도 확인할 수 있다. 하준이가 서희수가 친엄마가 아님을 알고 사라진 후, 서희수가 이를 찾아 나서자, 임신한 희수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이는 서희수보다 뱃 속의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하준이에게 “너와 난 ‘네 동생’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32) 아버지의 피도 받지 못한 지용보다는 차라리 아내 서현이 효원을 물려받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33) 김유연은 <마인>에서 신데렐라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다. 하준이의 튜터로서 면접을 봤으나, 메이드가 되었다. 에필로그에서는 한수혁과 결혼 후 미국 유학을 다녀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수혁에게 눈길을 주는 메이드를 쫓아내는 등 재벌가의 여성으로 변해있었다.

터지만 드라마 초기에는 모성의 보살핌이 결핍된 인물로 보인다.

한회장(한석철)은 효원가의 오너이자 후계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이다. 그러나 드라마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쓰러져서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드라마 후반부에서 효원의 후계자 지목 문제로 긴장감을 가져 오는 역할을 할 뿐이다. 효원가의 유일 남성 집사인 김성태는 왜소하고 겁많고 코믹한 어리바리한 인물이다. 종종 세상살이를 달관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헤드 집사인 주집사에게 핀잔을 자주 듣지만 한진호의 말벗이 될 정도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 준다. 4~5억 가치가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도망갔으나 팔지 못할 물건임을 알고 다시 돌아왔다. 정서현의 지시로 한수혁과 김유연을 미행하나 그 커플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한진호에게 한지용 살해를 지시받고 실천에 옮기나 모질지 못하여 실패하는 등 어리석고 모자라나 모질지는 못하다. <마인>에서 주요 남성은 한수혁을 제외하고는 불륜으로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렸고, 악한이거나 무능력자이다.

2)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서사: 성과 모성

(1) 여성의 섹슈얼리티: 무성성과 동성애, 실패한 이성애

<구경이>와 <마인>에서 여성의 사랑은 무성성, 동성애, 실패한 이성애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두 드라마 속 여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남성이 필요 없거나 부담이다. 무성성은 구경이, K, 나제희, 용국장 등 <구경이>의 주요 인물에서 나타났는데, 이들 누구도 이성애적 사랑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남성을 두고 경쟁하는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 서사는 없으며, 오히려 수사자와 범죄자(구경이-K, 구경이-용국장), 야망을 가진 자와 그 야망을 미끼로 활용하려는 자(나제희-용국장), 방법은 다르나 서로를 인정하는 암묵적 연대(구경이-K, 구경이-나제희)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젠더 이분법을 통해 구현해온 여성에 관한 전형적인 서사와는 다른 것으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는 전형적인 여성 서사를 넘어서 탈젠더적 특성이 발견되지만 그러한 서사는 드라마 속 남성의 부재, 즉 이성으로서 '쓸만하고 괜찮은' 남성의 부재를 통해 구현된다.

동성애, 성소수자 서사는 <마인>의 큰 특징인데, 정서현과 최수지와 연인관계를 말한다. 이성애적 결합으로 인정되는 결혼은 정서현에게는 진짜 사랑을 숨기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정서현의 결혼은 부부 상호간에 의무를 다하며 애정이 넘치는 완벽한 것이어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서현은 남편의 일정(여자 문제)을 알고, 상대여자를 통제할 수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완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서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는 매우 전복적이다. 여성에 대한 사랑, 아랫동서를 염려하며 돕는 여성 어른 등 정서현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는 여성연대, 자매애, 남성과 거리두기 등과 연결되며 부분적으로는 급진적인 서사로 이해된다. 성소수자 서사는 <구경이>에서도 나타났는데, K의 살인 조력자인 남성 건욱은 경비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는 대호와 연인 관계다. 남성 성소수자 설정은 드라마 <구

경이)의 전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구색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이성애 서사는 <구경이>와 <마인>모두에서 발견된다. <구경이>에서 구경이와 나제희는 분명 과거에 이성애에 노출되었으나 현재는 혼자이다. 남편이 자살한 구경이, 딸은 혼자 양육하는 나제희, 부부싸움으로 부모를 잃은 K 모두 실패한 이성애를 상징한다. <마인>에서 마찬가지로이다. 서희수는 완벽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로 알고 있었으나 이는 오해였고, 남편은 자신을 죽이라고 사주하기도 했다. 한진호는 재혼하였으나 정서현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한진호의 여동생 한진희도 바람을 피운 남편 박정도와 이혼한다. 양순혜는 남편(한회장)의 불륜과 바람으로 일생 속을 썩었으며, 급기야 남편의 죽은 연인과의 애정경쟁에서도 밀렸다.³⁴⁾ 두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이성애적 사랑을 실현한 커플은 한수혁과 김유연이다. 이 드라마에서 이성애적 사랑은 비중심인물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2) 여성의 연대: 자매애, 동지적 결탁

<구경이>와 <마인>에서는 여성간의 조화, 화합, 결탁,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 연대가 이야기의 주요 서사를 이루고 있다. 여성간의 연대는 남성 자원을 두고 경쟁하지 않는 구도로 인해 가능하였다.

<구경이>에서 구경이와 K는 범죄자를 쫓는 전형적인 구도와는 거리가 있다. 구경이는 K의 살인 계획이 실행될 수 없게 온 몸을 던져 막아내고, K는 자신의 살인 계획을 방해하는 구경이의 목숨도 위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그 과정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 욕망을 채우려했던 용국장 일당을 일망타진한다. 구경이와 K는 서로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일종의 정의실현을 함께 해낸 것이다.³⁵⁾ 특히 <구경이>에 등장하는 주요 범죄는 사법체계에서는 처벌의 한계를 보여준 여성대상 범죄다. 용국장의 둘째 아들의 범죄와 불법동영상 업로드 및 직원 폭행 사건은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³⁶⁾

구경이와 나제희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제희가 구경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폐인이 되다시피 한 선배를 돌보고 정서적 물질적으로 돌봐주는 행위에서 의리와 일종의 자매애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인>에서 여성간의 연대는 보다 노골적이고 포괄적으로 전개된다. 정서현-서희수, 서희수-강자경(이혜진)의 조화와 결탁이 핵심적인데, 정서현-서희수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희수-강자경의 결탁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34) 한회장은 혼외자인 한지용의 친모 김미자를 튜터로 들여서, 집에 비밀장소를 마련해두고 양순혜 몰래 바람을 피웠었다. 김미자가 죽은 후에도 매년 그녀의 생일을 기념하며 파티를 열었다.

35) K의 살인은 사법체계 내에서 처벌되지 않은 악을 처단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법적인 정의실현이라고도 평가될 수 있다.

36)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인 '버닝썬 사건'과 불법동영상 업로드 및 직원 폭행과 연관된 양진호 사건이 연상되었다. 에피소드에 등장한 '미로넷'은 현실의 소라넷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정서현-서희수는 가부장적 관점, 즉 남편의 집안 질서에서는 둘 다 약자에 속한다. 또한 재벌가라는 설정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 둘이 남편의 가족을 응대하는 방식에서는 여성은 남편의 집안에서 ‘을’이라는 전통적 관념을 뒤엎는다. 시어머니 양순혜와 시누이 한진희가 이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비난하면 정서현과 서희수는 서로 각자를 옹호하고 보호해준다. 그런 방식으로 정서현과 서희수는 양순혜와 한진희의 행패와 무례를 간단하게 제압한다. 서희수는 아들과 남편이 관련된 대소사를 손윗동서인 정서현과 의논했으며, 정서현은 서희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성소수자)을 알고 협박하는 한지용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재벌가 출신 정서현과 배우 출신 서희수가 동서로 만나 처음부터 잘 맞은 것은 아니었다. 정서현은 배우였던 희수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에’ 일을 자주 그르친다고 생각했고, 서희수는 정서현이 다른 사람의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 집안 가족들의 무례함과 빌런인 한지용을 상대하면서 둘은 서로 의지하고 지키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정서현은 서희수를 지키는 과정에서 성적 지향성을 아웃팅하게 된다. 정서현의 입장에서는 서희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폭로되는 것을 감내한 것이다.³⁷⁾ 또한 한지용이 살해당한 현장에서 정서현은 서희수가 한지용을 죽였다고 오해하여 서희수를 사건 현장에서 빼냈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서희수의 표현대로 이 둘의 관계에서 정서현은 ‘키다리 언니’다.

서희수-강자경(이혜진)의 관계는 정서현-서희수와는 다르다. 이 둘의 결탁은 목적이 명확한 전략에 가깝다. 초기에는 사랑(한지용의 아내 자리)과 지위(하준이 엄마)를 두고 갈등했지만, 한지용이 형편없는 사람이고, 서희수와 강자경 모두에게 해를 가하는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한지용으로부터 서로와 아들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 결탁하였다.³⁸⁾ 생모 강자경(이혜진)은 서희수를 하준이 엄마로 인정하고 하준의 튜터로 남아서 하준이를 돌보기로 한다. 이 둘의 관계는 어머니로서 연대한 모성 연대로 평가할 수 있다.

(3) 모성의 다양성: 양육모성, 출산모성, 모성과 거리두기

<구경이>와 <마인>은 모성, 즉 여성에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태생적 역할로 오인되는 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한다. 두 드라마에서 여성은 친생자가 없는 엄마, 출산자 엄마, 비출산자로 구분되었다. 이 둘과 모성과의 관계는 출산모성, 양육모성, 모성과 거리두기로 요약될 수 있다. 출산자의 모성은 강자경(이혜진)을 통해, 양육모성은 서희수가 중심인 에피소드에서, 모성과 거리두기 서사는 정서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마인>에서는 서희수를 통해 양육자의 모성이 출산모성과 비교할 때 결코 모자라지 않고 다르지 않음이 강조되었다.

37) 또한 정서현은 드라마의 마지막에서 다시 배우의 길을 가게된 희수를 보기위해 촬영장을 찾아오고, 희수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투자자가 되었다.

38) 강자경과 하준이가 하교시에 납치 당하자 이들을 구하는데 정서현도 합류하면서 한때는 정서현-서희수-강자경의 결탁이 잠깐 진행되었다.

양육자 엄마 서사는 서희수와 정서현, 양순혜를 통해 구현되는데, 그 중 서희수는 양육자의 모성이 출산자의 것에 못지않음은 실현하는 인물이다. <마인>의 1회에서는 시누이 한진희가 “7학년이면 하준이 무조건 유학 보내야 하는거 알지?”, “하준이가 니 친아들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지?”라고 말하자, 서희수는 “하준이 제 아들이예요, 형님”이라고 대꾸한다. 그 상황에서 정서현은 시누이 한진희에게, “수혁이 제 친아들 아니지만, 외국인학교 보냈고, 7학년에 유학보냈습니다. 절차대로”라고 응대하며 서희수 편을 들었다. 하지만 서희수는 한진희에게 ‘그 어린 것을 엄마 떼놓고 외국에서 혼자 지내게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서현에게는 ‘하준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 하준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응수한다. 서희수는 일명 ‘크립빵 투척사건’(시누이 한진희의 갑질사건)을 다룬 특종(하준이가 서희수의 친아들이 아니다)으로 덮자는 기자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드라마의 내레이터인 엠마 수녀는 ‘서희수씨는 하준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정서현은 ‘작은 사모는 하준이가 상처 받는 것보다 효원이 타격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비서의 말에 “나랑 너무 다르네”라고 혼잣말을 한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두 양육자 엄마는 각자의 의붓아들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모성은 절대적이며 양육모성도 그에 못지않다고 주장하는 서희수, 출산을 거부하고 모성 자체와 거리를 두는 정서현 등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서희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로서 이는 그녀가 미혼모 시설인 ‘일신회’의 봉사자라는 설정에서도 알 수 있다. 드라마 중반에는 친부모인 한지용-강자경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였고, 종국에 서희수는 생모를 이겨낸다. 하지만 서희수가 ‘하준이는 내 아들’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자신이 새엄마임을 하준이가 알게 될까봐 염려하는 장면에서 양육모성의 불안정성이 나타났다.

의붓아들을 양육한 또 다른 여성 양순혜는 한회장의 죽은 내연녀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들보다 잘난 의붓아들(한지용)을 보는 마음이 보다 복잡하다. 친아들이 대표이사가 되기를 바라며 한지용을 견제한다. 그녀의 복잡한 마음은 ‘김미자는 애첩이나 하라고 했지 지용이 친모는 나’라고 주장한데서 알 수 있다. 이를 들은 친아들(한진희)은 ‘우길게 따로 있지’라며 핀잔을 주었다.

이들 양육자 어머니 중 서희수는 양육모성이 출산모성과 다르지 않음을 주장했고, 정서현은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양순혜는 양육자 엄마의 차별을 드러내며, <마인>은 양육자 어머니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출산모성에 관한 서사는 <마인>의 강자경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강자경을 통해 구현된 출산모성의 가장 큰 특징은 우월감, 우세함, 본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양육자에 대한 도발은 서희수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다’고 느낀 몇 개의 에피소드에서 발견된다.³⁹⁾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전통적으로는 출생모성과 양육모성이 같든하는 경우 그 자식이 선택하는 형식이었으나, 이 드라마

39) 서희수가 ‘오늘 힘들었다’며 하교한 하준에게 ‘엄마 힘 좀 달라’며 팔을 벌리는데, 하준이가 그냥 올라가자 강자경은 ‘혼자 있고 싶다고 할 땐 혼자 두는 것도 좋다’며 서희수의 앞을 가로 막았다(3회).

에서는 두 엄마가 갈등을 봉합하였다. 또한 출산자의 우선권은 양육자가 출산자의 정성에 못지않을 때야 비로소 양보되는 것으로 표현됨으로써 모성은 어떤 양태이든 그 자체로 절대적 규범을 가진 것으로 재현되었다.

(4) 젠더 이분법적 한계

<구경이>와 <마인>은 기존의 텔레비전 드라마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재현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서사를 구성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젠더 이분법적 사고와 이상적인 여성에 관한 고유한 개념은 변방에 위치한 주변 인물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었다. 그 내용은 크게 모성의 강제성과 규범, 사랑 받는 여성의 조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모성의 강제성, 규범

두 드라마는 ‘엄마의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는 잘못 자란다.’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경이>의 K와 허성태/허현태 형제, <마인>에서는 한진호, 한지용, 한진희가 있다.⁴⁰⁾ K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이모의 보살핌을 받았으나, 이모가 엄마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허성태/허현태에게는 엄마(용국장)가 있지만,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만 있는 엄마, 작은 아들을 큰 아들의 방해물로만 인식하는 엄마였다. <마인>에서 한진호와 진희에게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남편의 연적이자 한지용의 친모인 김미자를 질투하며 일생을 보내는 엄마만 있을 뿐이었다. 한지용은 친모에게 학대를 받았으며,⁴¹⁾ 양모에게는 견제를 받았다. 그렇게 자란 한지용은 이상적인 엄마, 모성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가 상상한 모성은 드라마 후반부에 양육모와 친모의 연대를 통해 완성된다. 이 드라마는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를 합체시켜 완벽한 상상적인 모성상을 창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낳았던 길렀던 관계없이 어머니는 완벽하게 모성애를 발현해야 하는 존재로 표현되었다.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의 모성 이데올로기가 보다 엄격하고 완벽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더 완벽한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모성에 관한 규범도 제시되었다. ‘엄마니까 ○○○하다’, ‘엄마라면 ○○○해야 한다’는 주장의 사례는 서희수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소문낸 하준이 친구 엄마(지원이 엄마)에게 응대할 서희수와 강자경의 태도에서 관찰된다.⁴²⁾ 중국에는 출산자와 양육자 어머니가 힘을 합쳐서 아들을 돌보

40) <마인>의 한수혁은 조금 다르다. 친엄마는 자신을 두고 집을 나갔지만, 의붓엄마인 정서현의 거리를 둔 엄마 역할이 있었다. 또한 메이드 김유연에게 여성적인 보살핌을 받았다.

41) 한지용은 자신의 친엄마인 김미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았다. 엄마의 학대로 인해 다리에 상처가 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친모 김미자는 한지용이 한희장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지용을 ‘한희장에게 순수하게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골칫거리’로 여기며 학대했다.

42) 서희수는 ‘배우로서의 나를 건드린 건 관찮으나 하준이 엄마를 건드린 것은 용서 못한다’, ‘애만 낳았으면 엄만줄 아냐? 애 인생 드라이브를 그 따위로 하게 엄마라고 할 수 있냐?’고 비난하며 출산자 엄마의 규범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강자경은 진짜 엄마라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고 서희수를 비난하며 지원이 엄마의 뺨을 때렸다(3회).

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마인>이 모성의 외연은 넓혔으나 모성에 관한 관념을 더 엄격하게 규범화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사랑받는, 사랑받지 못한 여성

두 드라마에서 완성된 유일한 이성애적 사랑은 한수혁-김유연 커플이다. 한수혁은 집안의 다른 남성 캐릭터와 달리 무능하거나 권력지향적인 인물이 아니며, 김유연은 재벌 3세와 결혼하여 신분상승한, 일종의 신데렐라이다. 이들 커플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젠더 이분법적 서사에 기초하고 있다.

사랑을 갈구하나 실패한 여성으로는 양순혜, 한진희가 있는데, 둘 다 시끄럽고, 교양없고, 패악스럽고, 신경질적이다. 맥락상 이들이 그러한 이유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자신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에게는 사랑만이 전부인데 그 사랑에 실패했고, 그 결과 엉망이 되고 볼품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양순혜는 평생 한회장의 사랑을 갈구했다. 하지만 한회장은 이미 사망한 내연녀를 잊지 못해 매년 그녀의 생일날 파티를 열었고, 생전에는 집안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외도를 하였다. 사랑에 대한 갈망, 배신의 상처는 양순혜가 그녀의 공작새 노덕이를 대상으로 늘어놓은 낚두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녀는 재벌가 여성임에도 경영, 경제, 기업 운영에 무관심하며 친자의 경영승계와 사랑에만 집착하는 사치스러운 인물이기에 사랑에 실패하거나 사랑받아서도 안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범죄, 미스터리, 블랙코미디의 복합장르인 <구경이>와 재벌가의 권력과 욕망을 둘러싸고 벌어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스릴러물인 <마인>은 드라마 형식이나 서사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르다. 연구자들은 이 두 드라마에서 여성 인물,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우리 시대 텔레비전 드라마를 관통하는 여성에 관한 관념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여성인물에 대한 외적 표현, 인물의 인격, 여성 간의 관계, 남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과거 드라마와는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다. <구경이>의 구경이는 전문영역에서 능력은 뛰어나나 트라우마로 인해 은둔형 폐인으로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이며, 거칠지만 단순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는 정의로운 촌테레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대중문화물에서 '술 좋아하는 망가진 정의로운 천재 남성'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구경이>는 전형적인 젠더 규범에서의 표식을 성별로 교차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 면이 있었다. 그래서 구경이에게서는 젠더초월성이나 전복보다는 남성 흉내내기가 인지되었다. 하지만 <구경이>의 인물 구성과 역할에서는 과거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달랐다. 보통 수사물에서는 남성이 가해자이고(조력자는 여성) 여성은

피해자이며, 형사나 경찰 같은 공권력도 남성이 중심이고 여성은 조력자인데 반해, <구경이>에서는 최고의 빌런도 여성, 조사관 등 사건을 파헤치는 중심인물들도 여성, 가해자도 여성이다. 오히려 남성들이 조력자로 등장한다. 또한 구경이-송이경, 구경희-나제희를 통해 여성이기에 공유하는 감정과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면서 여성서사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인>은 여성인물을 젠더 이분법적 규범에서의 남성성을 통해 포장하거나 흉내 내기보다는 젠더 이분법의 경계에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여성적 표식을 버린 구경이와 달리 정서현은 젠더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인물 구성에서 전통적인 남성성의 특성이 활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는 온전히 남성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탈젠더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서희수와 강자경은 여성 캐릭터의 젠더 전형성을 벗어나지 않았다.

<마인>은 여성서사와 전통서사를 동전의 양면처럼 엮어서, 여성주의적 시각과 가부장적 질서가 공립하게 만들었다. 출산을 통하지 않은 어머니, 이성애적 결혼 제도에 속해있는 여성 성소수자 서사가 대표적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의 것이었던 돈과 권력을 가진 성소수자 서사를 여성에게 돌림으로서, 여성과 성소수자 모두에서 전복적인 서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드라마에서는 권력자이거나 롤모델로 삼을 만한 남성이 없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남성을 두고 여성 간에 경쟁할 이유가 없으며, 그 결과 여성들 간의 쟁투 없이, 금지된 사랑으로 인한 갈등(동성애), 남성 인물이 주도하는 패악과의 싸움, 어머니 자리를 둘러싼 경쟁에 집중되어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전형적 서사 중 하나인 로맨스를 차지하기 위한 여성간의 경쟁이 없다. 이 두 드라마에서는 남성을 지우면서 여성 서사를 구축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전형화된 젠더 인식 및 규범을 완전히 초월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주요 여성 인물은 재현되는 방식이 기존의 드라마와는 달랐지만, 주변 인물들은 여전히 젠더 이분법적 틀 속에서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통해 이상적인 모성 및 사랑받는 여성상의 가치를 발현한다. 특히 모성에 관해서는 그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모성이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범화하면서 출산자와 양육자의 대립과 견제, 혹은 협력을 통해 완벽한 모성을 형상화하였다. 모성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과 이데올로기는 분명 여성에게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모성 경쟁을 통해 엄마의 자격과 상상적인 이상적 모성이 그려진 것이 아이러니다. 이들 드라마에서 남성을 통한 신분 상승의 서사는 핵심은 아니지만, 이 서사는 돈 많은 늙은 여성과 부잣집 철부지 여성 캐릭터를 통해 재현된 사랑만이 전부인 여성 이미지와 함께 여전히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변방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적인 서사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2022년 현재,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은 1990년대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2000년대에는 젠더 이분법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분석과 가부장적 질서가 전복되었다는 평가가 종종 등장했다. 하지만, 보편적인 다수가 관객인 텔레비전 드라마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 전적으로 전복적일 수는 없다. 이 두 드라마를 분석하면서,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

다. 대척한 두 질서가 공존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전략, 즉 가부장적 규범은 모호하게 표현되나 함의는 명료하게, 여성주의적 서사는 표현은 분명하나 의미는 흐릿하게 하는 방식으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를 이끌어간다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렸다.

〈참고문헌〉

- 김강은 (2020). 고소설 문화콘텐츠를 통해 본 여성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 웹툰 <그녀의 심청> 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집, 177-205.
- 김미라 (2021). TV드라마 <마인>의 여성주의 서사: 가부장제 클리셰의 파기와 질서의 전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집 11호, 268-280.
- 김훈순 (2013).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들의 일상: 사랑, 가족, 일. <다시보는 미디어와 젠더>(191-219). 이화출판.
- 김훈순, 김미선 (2008). 여성 담론 생산의 장(場)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30대 미혼여성의 일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244-270.
- 박은하 (2013).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이야기 구조와 남녀주인공의 특성 - 방송3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2호. 48-59.
- 박주연 (2019. 5.6). “레즈비언 캐릭터 좀 그만 죽여라!” 외친 팬들- 변화를 이끄는 퀴어여성들의 팬덤, <클릭사콘>에 가다 上. <일다>. <https://ildaro.com/8463>
- 우린 (2010). 트렌디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여성상과 남성상의 캐릭터 서사비교 : SBS <검사 프린세스>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04-111.
- 이종임 (2014). 1970년대 드라마 속 여성의 역할과 젠더 재현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180 - 205.
- 정영희 (2020). 텔레비전 드라마 속 모성 판타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132-166.
- 정영희, 장은미 (2015). 흔들리는 젠더, 변화 중인 세상: 드라마 <미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0권 3호, 153-184.
- 정지은 (2014). TV 드라마의 젠더 관계 재현 방식: 연상녀 · 연하남 커플에 대한 재현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 최현주 (2008). 텔레비전 드라마에 묘사된 성역할의 전도(reverse)와 그 함의-남성 전업주부 드라마 <불량주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4), 401-438.
- 홍지아 (2010).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9호, 122-143.
- Hall, S. (1997). The Works of Representation. In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13-74). London u.a.
- Mikos, L. (2003). *Film-und Fernsehanalyse*. Utb. 정민영, 김종대, 김형래, 김혜숙, 류용상, 백인옥, 서유정, 신혜선, 임우영, 주미경 옮김(2015). <영화와 텔레비전 분석 교과서>. 커뮤니케이션북스.
- Pingree, S. Hawkins, R. P., Bulter, M., & Paisley, W. (1976). A Scale for Sexism. *Journal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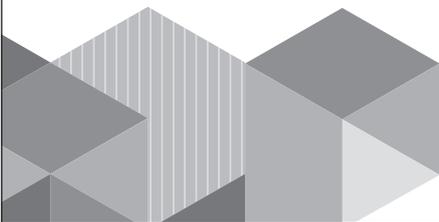
Communication, 26(4), 193~201.

Taylor, L. & Willis, A. (1999). *Media Studies: Texts, Institutions and Audiences*. Oxford/
Malden,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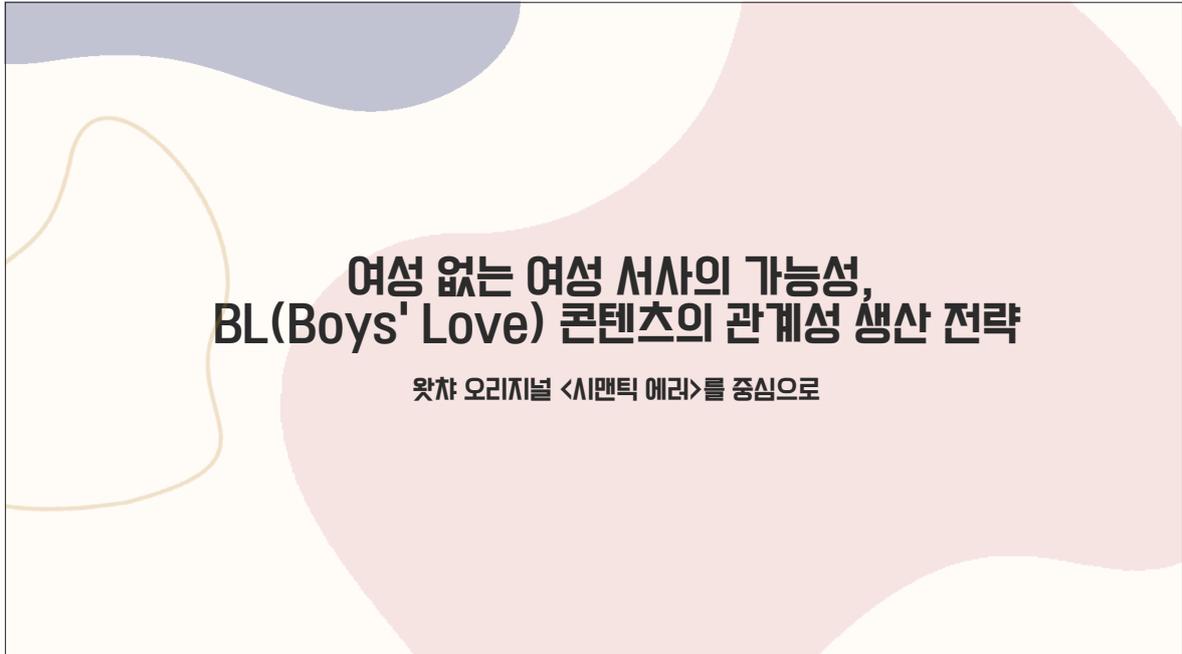


여성 없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 BL(Boys' Love) 콘텐츠의 관계성 생산 전략: 왓챠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장민지(경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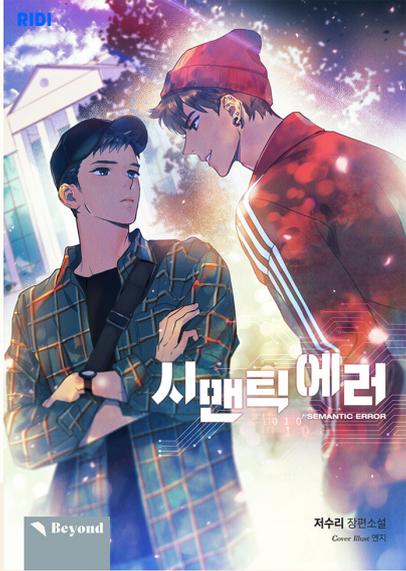
— 여성 없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 BL(Boys' Love) 콘텐츠의 관계성 생산 전략: 왓챠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SEMANTIC ERROR
W Original 크리극 황송들의 컴퍼스 로맨스
시맨틱에러
공감해, 너라는 에러
2월 16일 공개 WATCHA

- 1 서론
- 2 국내 BL콘텐츠의 상업적 성장
- 3 여성 없는 여성 서사, BL장르 <시맨틱 에러>의 대중화 과정
- 4 나와는 무관한 남성들'간'의 연애, BL





2022년 왓챠WATCHA가 독점 공개한 웹 시리즈 <시맨틱 에러>는 리디북스 오리지널인 저수리 작가의 웹소설이 영상화 되어 유통된 시리즈

두 주인공이 아이돌 그룹 멤버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거 앨범 물량이 매진되는 등, 원작인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배우를 IP가 콘텐츠와 연결성을 갖고 활성화되고 있음

국내 OTT 플랫폼인 왓챠가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로 BL 장르의 영상화(실사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BL(Boys' Love)



주로 여성이 생산하고 주로 여성이 소비하는 생태계적 특성을 가짐



남성 간의 사랑(관계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퀴어장르와는 달리 여성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로맨스-판타지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



BL장르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취향의 것으로 취급

— 여성 없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 BL(Boys' Love) 콘텐츠의 관계성 생산 전략: 왓차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 2020년 황다솔 감독의 작품인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를 시작으로 하여 몇 년 사이에 BL장르의 영상화가 빠르게 기획-제작되고 있음
- 무엇보다 시리즈 <시맨틱 에러>의 성공은 차후 기존의 BL 웹소설을 활용해 오리지널 IP가 영상화되는 방식으로 장르적 확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아시아 전역에 고정적 팬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IP 활성화 및 확장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 팬덤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취향을 위하여 언제든지 지갑을 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은 이용자층



- 제작과 수용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BL콘텐츠**를 하나의 '여성 없는 여성서사'로 간주하고, 글로벌 OTT 채널을 통해 비주류 장르였던 BL서사의 **대중화 전략**을 살펴봄
- BL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팬덤 구축 전략인 '**관계성 생산**'을 콘텐츠 산업, 그 중에서도 **IP 확장**의 측면에서 구체화
- BL콘텐츠의 상업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BL장르 활성화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

국내 BL의 상업적 성장

- 국내 BL콘텐츠의 역사는 PC 통신의 발달과 생산자적 성격을 가지게 된 이용자, 그리고 남성아이돌 그룹 활성화 시기와 겹치지면서 팬픽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창작되고 실험되었음
- BL콘텐츠 생태계 특성은 이 장르의 이용자들에게 서사에 자신의 해석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하였으며, 이것이 하나의 팬 콘텐츠로서 작동하게 되는 이용자 관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한국 BL의 초기 상업화에는 유료 웹툰 플랫폼의 서비스의 등장이 큰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
- 2013년부터 레진코믹스가 유료로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플랫폼 내에 장르의 다변화가 시도되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자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되었던 BL은 상업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식적인 장르로 유통되기 시작

국내 BL의 상업적 성장

-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영상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OTT 시장도 함께 커지기 시작하면서 OTT 채널들은 성공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영상화될 수 있는, (콘텐츠 IP확장 가능성이 높은)원작을 확보하고 트랜스미디어화하기 시작
- OTT의 경우 구독자를 유입하고 이들을 플랫폼에 고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향의 다변화를 이끌어야함. 이로 인하여 이전까지 가시화되지 않았던(혹은 못했던) BL장르가 미디어 플랫폼의 활성화와 함께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

— 여성 없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 BL(Boys' Love) 콘텐츠의 관계성 생산 전략: 왓차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제목	방영년도	기타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2020	오리지널
미스터 하트	2020	오리지널
위시유	2020	오리지널
컬리리쉬	2020	웹소설
나의 불에게	2021	오리지널
유 메이크 미 덴스	2021	오리지널
류션비의 혼례식	2021	오리지널
새빛남고 학생회	2021	게임
플로리다 반점	2021	오리지널
피치 오브 타임	2021	오리지널
마이스윗디어	2021	오리지널
물들어	2021	오리지널
비하인드 컷	2021	오리지널
컬리리쉬 시즌 2	2022	웹소설
깨물고 싶은	2022	오리지널
첫사랑만 세번째	2022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	2022	웹소설
겨울 지나 뽕긋	2022	웹툰
하숙집 오번지	2022	웹툰
유도소년	2022	오리지널
블루밍	2022	웹툰
오션라이크미	2022	오리지널
수업중입니다	2022	오리지널
준정지란	2022	웹툰
나의 불에게 시즌 2	2022	오리지널

- 현재 미디어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취향을 전시하는 특징을 가짐
- 이러한 미디어 생태계 변화는 BL장르가 콘텐츠 산업에서 공식적으로 장르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결론적으로 미디어의 발달과 OTT의 등장, 이로 인한 BL장르의 상업화와 이용자들의 유입경로 활성화는 BL콘텐츠를 가시화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

BL서사에서의 캐릭터 관계성 (relationship)과 짬오디 전략

- 관계성이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연결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최지민, 2014, 9쪽)”으로 인간 사이에서는 ‘나와 타자’의 관계를 뜻함
- BL장르는 ‘러브스토리를 제외하면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잃고, 독자들의 관심도 받기 힘든 특징(Michaels, 2007/2015, 13쪽)’을 갖는 로맨스 장르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사랑에 빠지기 힘든 남성들 간의 연애(in a relationship)를 중점적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BL장르는 주인공들 간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 관계성이 부각되는 로맨스 장르는 배우들이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사랑의 관계와 연애의 감정을 쌓는 서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수용자는 1)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2) 연애 관계에 놓이는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의 관계성 또한 염두에 둘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이때 생성되는 두 개의 관계성은 서로 연결되며 상호작용

BL서사에서의 캐릭터 관계성 (relationship)과 짬오디 전략

-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배우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끊임없이 노출하게 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배우-캐릭터 간의 이중-관계성(double-relationship)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음
- BL장르는 배우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배역이 아니라는 점, 서로가 특수한 상황에서 관계성을 쌓아가야 한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메인 텍스트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들의 현실 관계성(real relationship)에 대한 서브 텍스트가 많이 주어지는 경향
- 이러한 관계성, 특히 가상과 실재를 오가는 이중 관계성은 OTT라는 유통 채널이 가진 콘텐츠 확산전략과 맞물려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용됨
- 제작사들과 유통사들은 공(이야기)과 사(현실세계)를 오가는 이중 관계성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몰입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게 하게 됨. 다시 말해 외부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부가 텍스트들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생태계로 돌입하고 있는 것

- 캠퍼스물은 OTT 채널과 웹툰·웹소설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층인 20, 30대 여성들의 공감대 형성 가능성이 높은 장르
- 캠퍼스라는 서사의 배경이 BL장르의 주축이 되는 두 남성간의 사랑보다 상대적으로 보편성을 띤 요소라는 점은 주변 장르였던 BL이용자의 양적 확장의 주된 요인
- 영상화된 <시맨틱 에러>는 장재영과 추상우의 ‘사랑’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가’ 즉, 사건의 전개에 초점
- 이전까지 브로맨스라 불렸던 남성서사와는 선을 그으면 서도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 문법을 자연스럽게 전개시켜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BL서사 문법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것



— 여성 없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 BL(Boys' Love) 콘텐츠의 관계성 생산 전략: 왓차 오리지널 <시멘틱 에러>를 중심으로

- 과도한 성애묘사가 없는 BL장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의 환상성을 극대화
- 로맨스 서사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이용자-특히 여성 주체를 그 관계성에서 소외시킬 수 있는 가능성
- 이러한 소외는 현실 연애에서 여성이 갖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사 몰입의 효과적인 도구
- 여성들은 상호 로맨스 관계에 놓인 남성 둘 다를 성적 대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사 밖에서 시선권력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시멘틱 에러>는 본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기 전 장재영과 추상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웹소설 <시멘틱 에러>에 기반한 장재영/(박서함), 추상우/(박재찬)가 등장하는 포스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초반부터 <시멘틱 에러> 세계관에 입각한 이용자 몰입을 구축
- 본 콘텐츠를 방영하면서 왓차 오리지널과 박재찬이 속해있는 DKZ(그룹이름)의 자체 콘텐츠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변 텍스트를 콘텐츠화하여 지속적으로 확산
- 여기서 주변 텍스트는 1) 장재영과 추상우라는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거나 2)이를 연기하는 배우인 박서함과 박재찬이 등장하는 방식, 즉 가상과 현실 모두에서 발생하는 서브 텍스트를 콘텐츠로 제작




- 관계성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해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이용자들의 몰입을 강화한다는 특징
- 이용자들은 가상의 서사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관계성에서 비롯된 서사를 소비하거나 이용
- 비하인드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차후 발간된 <시맨틱 에러> 포토 에세이, 대본집은 각각 장재영과 추상우를 연기하는 박서함과 박재찬의 모습뿐만 아니라 대본에 두 배우의 해석을 함께 포함시키면서 서브 텍스트를 콘텐츠화하여 이용자들의 가상/현실 관계성을 이층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



나와는 무관한 남성들 '간'의 연애, BL



- BL장르는 텍스트 내 연애 관계에서 여성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자신들과는 '무관한' 동시에 '무해한' 안전지대의 남성들의 로맨스를 외부에서 지켜볼 수 있게 함
- 이러한 서사적 요소는 여성들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도 '이성애적 연애관계'의 불균형과 과도한 감정몰입을 서사적 장치로 통해 방지
- 이는 여성에게 현실과 괴리된 '안전지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텍스트 외부에서 BL장르를 살펴보면, 등장인물이 남성인 것을 제외하고 이 생태계의 행위자 다수가 여성
- BL장르의 여성 서사는 텍스트 내부가 아닌 텍스트 외부에 위치
- BL 생태계에서 여성들은 서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용하면서 이전까지 미디어에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어왔던 여성이 아닌 '남성'들을 어떻게 욕망하고 전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
- 여성들이 남성을 카메라 앞에 서게 하고, 주체적인 시선으로 욕망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 산업계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



— 여성 없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 BL(Boys' Love) 콘텐츠의 관계성 생산 전략: 왓챠 오리지널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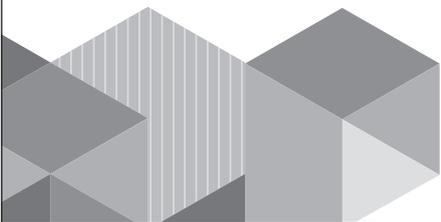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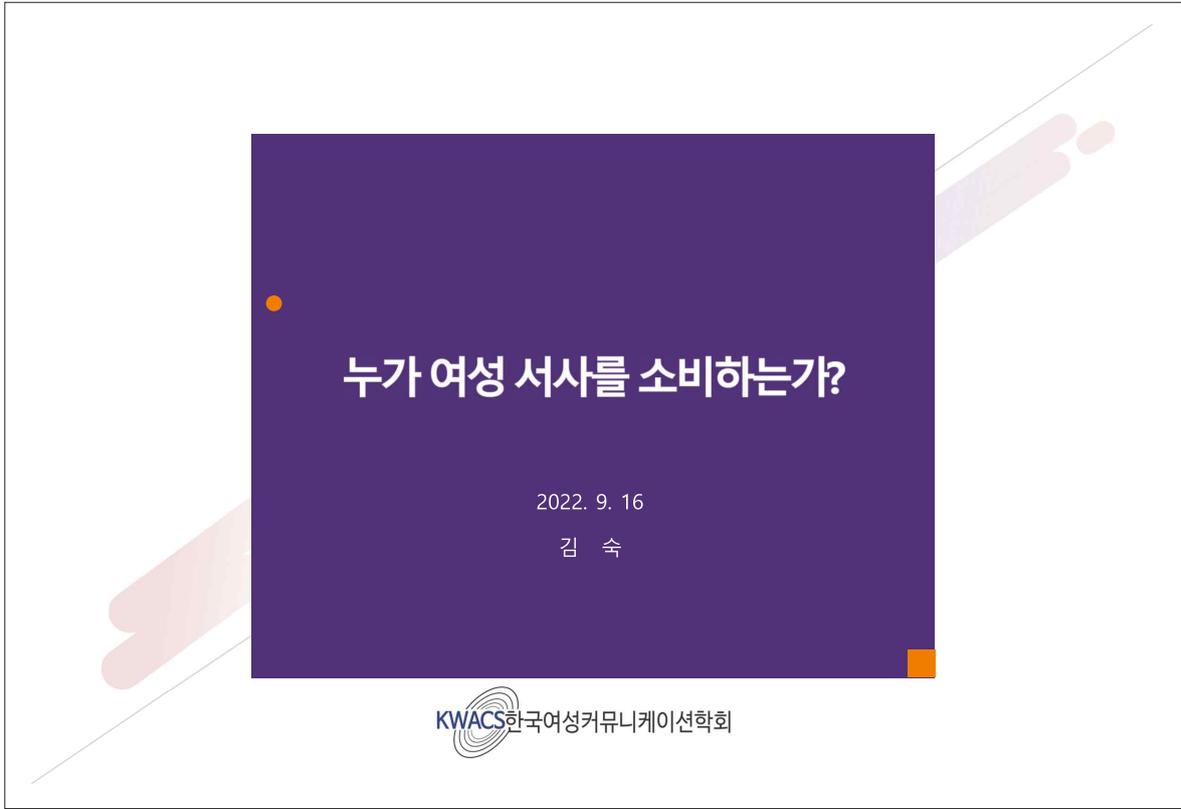


3

누가 여성 서사를 소비하는가?

김 숙((주)컬처미디어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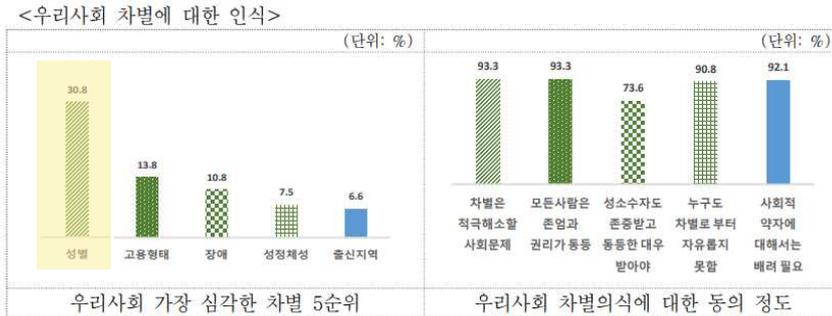




■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여성은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약라는 인식이 절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1%가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나타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p.11, p.13 내용 발췌 및 재구성

■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여성은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약라는 인식이 절대적

“(○○○ 작품에서) **여성 자체가 되게 약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주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넘어서서 불필요하게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성적인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당하고 항상 여성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드러내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은 항상 여성이 이렇게 약자의 위치에 많이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 통쾌함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들이 아동부터 나이가 든 여성까지 전부 약자이고 전부 당하는 모습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꼭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나 약간 과도한, 선을 넘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게 차별표현이라고 본다)(K, 여성, 40대)”

출처: 한국만화가협회(2022). <웹툰 차별표현 대응방안 연구> 중 인터뷰 발췌

■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여성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라는 인식이 절대적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념일, 알고 계시는가요?

작성자	이유진
작성일	2016-03-23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념일, 알고 계시는가요?

[16기 문화부 기획기사] 우리나라의 기념일

16기 문화부는 큰 주제로 '우리나라의 기념일'을 선정하였습니다. MOO 독자님들은 달력에 빨강색 칠해진 날이 아닌 기념일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마, 쉬는 날이 아니라면 그저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온 뉴스를 통해 아, 오늘이 어떤 날이구나. 하며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하여 독자님들에게 사회적 약자와 같은 사람들에 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여러 기념일 중에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기념일들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자신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가정, 동성애자, 아동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웹진 MOO

■ 소비자로서의 여성

마케팅 대상으로서의 여성

- 사회학자 페이스 팝콘은 여성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마케팅을 원리를 안다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판매, 유통 방법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미래 사회에서는 여성을 아는 자만이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둘 것 이라고 말했다**(김은주, 2015)

여성 소비자의 구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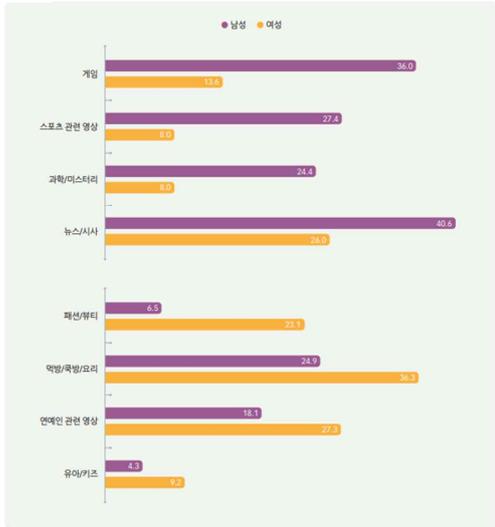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연간 소비자 지출에서 약 20조 달러를 통제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향후 5년 동안 28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은 중국과 인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성장 시장을 대표하며, 실제로는 두 배 이상이다. 이러한 수치를 감안할 때 여성 소비자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가정용 가구의 94%... 휴가의 92%... 가정의 91%... 자동차의 60%... 가전제품의 51%는 여성이 구매 결정을 내린다.

출처: Michael J. Silverstein & Kate Sayre(2009). The Femal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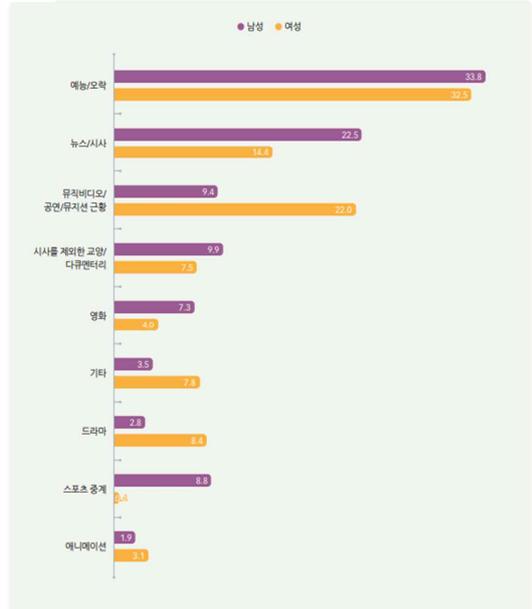
■ 소비자로서의 여성

여성의 콘텐츠 소비

유튜브를 통한 시청비율의 남녀 차이가 큰 개인/소집단 제작 콘텐츠 장르 (단위: %)



유튜브에서 가장 자주 본 전문제작사 콘텐츠 장르의 남녀 비교 (단위: %)



주: 최근 1주 유튜브 이용자 대상(남녀 포함 1,342명, 인터넷 이용인구 비례 보정치)

주1: 최근 1주 유튜브를 통한 전문제작사 콘텐츠 시청감행자 대상(남성 565명 및 여성 550명을 포함한 1,115명, 인터넷 이용인구 비례 보정치)

출처: 김청희, 김남두(2021). 성별, 연령대별 유튜브 및 넷플릭스 콘텐츠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소비자로서의 여성

여성의 콘텐츠 소비

넷플릭스에서 가장 자주 본 콘텐츠 장르별 시청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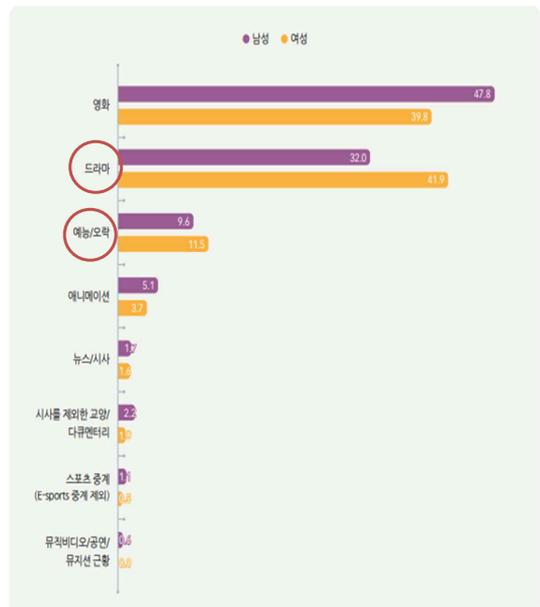
콘텐츠 장르	시청비율(%)		x ²
	남성 (178명)	여성 (190명)	
영화	83.1	81.1	0.27
드라마	60.1	82.2	22.08***
예능/오락	39.3	51.6	5.56*
애니메이션	33.1	35.1	0.15
시사를 제외한 교양/다큐멘터리	23.6	14.2	5.31*
뉴스/시사	12.4	12.6	0.01

주1: 최근 1주 넷플릭스 이용자 대상(남녀 포함 368명, 인터넷 이용인구 비례 보정치)

주2: 장르 제시 순서는 최근 1주 넷플릭스 이용자 대상으로 산출한 장르별 시청비율 순위를 반영

*: p < .05; **: p < .01; ***: p < .001

넷플릭스에서 가장 자주 본 콘텐츠 장르의 남녀 비교 (단위: %)



주1: 최근 1주 넷플릭스 이용자 대상(남녀 포함 368명, 인터넷 이용인구 비례 보정치)

주2: 장르 제시 순서는 최근 1주 넷플릭스 이용자 대상으로 산출한 장르별 시청비율 순위를 반영

출처: 김청희, 김남두(2021). 성별, 연령대별 유튜브 및 넷플릭스 콘텐츠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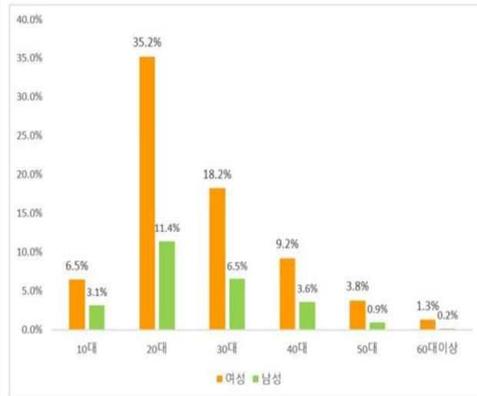
■ 소비자로서의 여성

여성의 콘텐츠 소비

- 전체 예매자 중에서는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49.8%로 공연 시장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 고객층



2021 인터파크 전체 공연 예매자 성별 연령별 분포



2021 온라인공연 예매자 성별 연령별 분포, 인터파크 제외

출처: 박정선(2022.02.15). 공연시장, 여성 관객이 건인... 지난해 티켓 판매액 2837억원. 데일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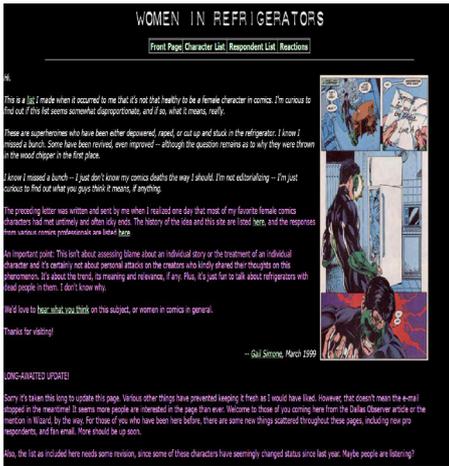
02

여성 서사란 무엇인가?

“냉장고 속의 여자” 클리셰 깨기

■ 냉장고 속의 여자

- 냉장고 속의 여자(Women in refrigerator)는 만화 속에서 남성 캐릭터의 각성을 위해 살해당하거나, 부상당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여성 캐릭터들을 소비하는 클리셰를 일컫는 용어, 혹은 그러한 클리셰에 희생당한 여성 캐릭터들의 리스트를 기록하는 웹사이트



Not every woman in comics has been killed, raped, depowered, crippled, turned evil, maimed, tortured, contracted a disease or had other life-derailing tragedies befall her, but given the following list (originally compiled by Gail, with later additions and changes), it's hard to think up exceptions:

만화 속 모든 여성이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고, 무력화되고, 사약해지거나, 불구가 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른 비극이 닥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목록을 보면 예외를 생각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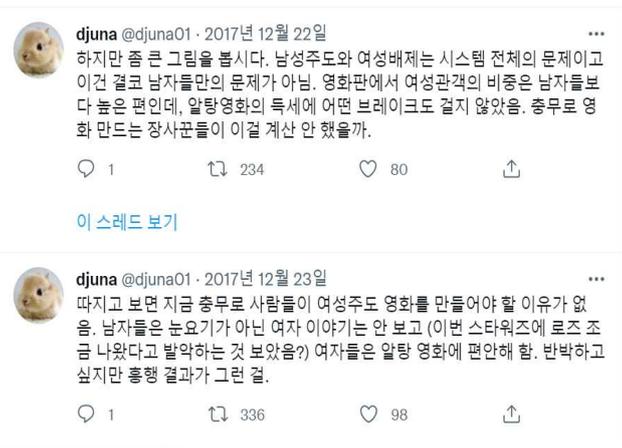
출처: <https://lby3.com/wir/>

<https://twitter.com/minister0o0/status/1023920567118774272>

■ 여성서사의 개념

2017년 트위터 들여다보기

출처: <https://twitter.com/i/events/944513810659917824>



■ 여성서사의 개념

출처: <https://twitter.com/i/events/944513810659917824>

2017년 트위터 들여다보기

#



존버 지기(준비) @csangiki

⚙️

여성주의영화 또는 여성서사중심 영화가 흥행하지 못하는 데는 관객들이 찾지 않는 이유에 덧붙여 극악한 상영관 문제도 있지않나. 그리고 이 영화는 여자가 주인공이라서 봐줘야해, 란 생각은 좀 아닌듯. 영화는 인기배우가 없다면 포스터나 시놉만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킬 특징이 있어야 그나마 보러감

오전 10:07 · 2017년 12월 25일 · Twitter for Android

3 리트윗 2 마음에 들어요

■ 여성서사의 개념

출처: <https://twitter.com/i/events/944513810659917824>

2017년 트위터 들여다보기

여성서사

ize magazine @izemag · 2017년 12월 5일
 ZE '비밀의 숲' 한여진,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의 일 많은 한국 드라마에서는 장르를 불문하고 전문직을 다룬 대다수의 작품 속 여성을 남성 주인공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 묘사하곤 했다. 반면 한여진은 오히려 황시목(조승우)의 단점을 비판하고, 무심코 본심을 드러낸 그를 보며 여유롭게 웃는다.



2 82 70

이 스레드 보기

← 스테스

ize magazine @izemag · 2017년 12월 5일
 @izemag 님에게 보내는 답글
 웹툰 '머느라기' 민사린, 한 여성의 자존감 찾기
 민사린이라는 캐릭터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가족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한 요구에도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는 스스로를 자각한 순간, 드디어 민사린은 변화의 문턱에 들어선다.



■ 여성서사의 개념

성평등 지수 정책의 도입과 논쟁

영진위는 한국영화 산업에서 여성 인력과 여성 주도 서사의 비율을 늘리고자 올해부터 성평등 지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도 지원사업 심사 시 여성 작품들에 최대 5점의 가산점(100점 만점)을 준다고 명시했다. 본선 심사에서 여성서사(주연이 여성)는 3점, 여성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2점을 가산점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글 작성자는 “여성서사+여성작가면 왜 가산점인가”라며 “경력단절이네, 뭐네다 따져도 이미 여성작가 많은데 뭘 또 가산점 퍼주는 거지? 왜 할당하나. 여자가 장애인인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초에 여자 감독, 여자 서사가 밀린다는게 그냥 영화가 노잼(재미없다)이라 그런 거지 뭐 성차별”, “개판이네 진짜.. 나라꼴 잘 돌아간다”, “여자라는 프레임 씌우는 것도 역차별 아닌가”, “페미를 하렘 더니 남혐을 부추기는 사회” 등의 격분된 반응을 보였다.

영진위는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1.2단계),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지원 사업,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장편·단편·다큐) 등 2개 부문 6개 사업에 정책을 적용한다.

응모작들은 여성 감독·PD·작가·서사(주연이 여성) 여부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명이 감독을 맡고 작가도 하는 등 1인 다역인 경우엔 중복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여성 창작진으로 신청하고 중간에 참여자를 남성으로 변경하는 건 금지된다.

출처: 구자윤(2021.05.04). “여성서사+여성작가면 왜 가산점인가” 영화계 가산점 논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040753244990>

○ 본선심사

평가항목	독창성과 참신성	완성도	영화화 가능성	성평등 지수 가산점(5점)	
				여성서사 (재1여주인공)	여성작가
평가점수	40점	30점	30점	3점	2점

■ 여성서사의 개념

여성 서사 지표: 벡델 테스트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Alison Bechdel)이 남성 중심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계량하기 위해 고안한 영화 테스트

벡델 테스트는 다음의 질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 ① 이름을 가진 두 명 이상의 여성이 등장하는가?
- ② 그 두 명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가?
- ③ 그 대화의 주제가 남자 이외의 것인가?

- 스웨덴은 2012년 세계 최초로 영화산업에 벡델 테스트를 도입해 모든 영화에 이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에는 영화 상영 직전 인증마크'A'가 부여됨
- 그렇다고 벡델 테스트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부적절. 벡델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해서 페미니즘 작품은 아니며,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페미니즘 작품인 것은 아님

■ 여성서사의 개념

2021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 30위 영화 중 28편의 캐릭터 성인지 분석결과

1. 영화주연 성별

구분 (주연1-2)	빈도 (편)	백분율 (%)	영화 (전체 28편)
여-남	4	14.3%	<연애 빠진 로맨스> <내일의 기억> <해피 뉴 이어> <미드나이트>
여-여	6	21.4%	<랑종> <방법:재차의>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 모교> <세자매> <아이> <어른들은 몰라요>
남-여	6	21.4%	<장르만 로맨스> <미션 파서블> <비와 당신의 이야기> <새해전야> <귀문> <최면>
남-남	12	42.9%	<모가디슈> <싱크홀> <인질> <보이스> <발신제한> <유체이탈자> <기적> <서복> <자산어보> <강릉> <파이프라인> <더 박스>

출처: 조혜영, 백현지(2022). 2021년 한국 영화산업 성인지 통계. KOFIC 이슈페이퍼 2022_Vol.02

■ 여성서사의 개념

2021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 30위 영화 중 28편의 캐릭터 성인지 분석결과

- 주연1이 남성이고 주연2가 여성인 영화 7편 중에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0편

2. 백델 테스트 통과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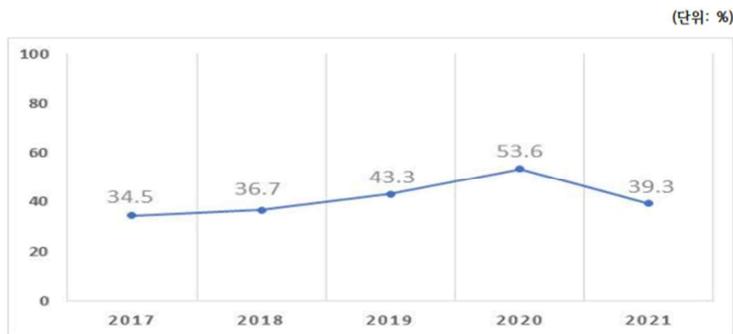
구분 (주연1-2)	빈도 (편)	영화 (총 28편 중 11편 통과, 39.3%)	비고
여-남	2	<연애 빠진 로맨스> <미드나이트>	'여-남' 4편 중 2편
여-여	6	<랑종> <방법:재차의>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 모교> <세자매> <아이> <어른들은 몰라요>	'여-여' 6편 중 6편
남-여	0	해당 없음	'남-여' 6편 중 0편
남-남	3	<모가디슈> <싱크홀> <유체이탈자>	'남-남' 12편 중 3편

출처: 조혜영, 백현지(2022). 2021년 한국 영화산업 성인지 통계. KOFIC 이슈페이퍼 2022_Vol.02

■ 여성서사의 개념

2017~2021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 30위 영화 벡델 테스트 통과율

-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한국영화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주연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아지면 여성 캐릭터가 배제되거나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음



출처: 조혜영, 백현지(2022). 2021년 한국 영화산업 성인지 통계. KOFIC 이슈페이퍼 2022_Vol.02

■ 여성서사의 개념

여성 스테레오타입 테스트와 여성 서사

여성 스테레오타입 테스트 문항

구분	문항
1	여성이 전적으로 남성의 구출 혹은 구원에 의지하는가?
2	여성의 행동이나 결단이 설득력 없이 소개되며 남성을 곤경에 빠트리는가?
3	여성이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에서 구색 맞추기나 감초로 기능하는가?
4	돌봄이 설득력 있는 서사 없이 여성의 당연한 의무나 본성으로 부여되는가?
5	여성이 일차원적 이성애 로맨스의 대상으로만 기능하는가?
6	과도하게 성애화된 자극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여성이 존재하는가?
7	자기 서사 없이 (범죄 등의) 피해자로만 전시되는 여성이 존재하는가?

- 28편 중 '여성 스테레오타입 테스트'에 해당하는 영화는 총 2편(7.1%)
- <강릉>(7번에 해당), <파이프라인>(3번에 해당)
- 2019년 13편(43.3%), 2020년 5편(17.9%)에 이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 2017년 17편(58.6%), 2018년 11편(36.7%)과 비교해서도 크게 줄었으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출처: 조혜영, 백현지(2022). 2021년 한국 영화산업 성인지 통계. KOFIC 이슈페이퍼 2022_Vol.02

■ 여성서사의 개념

여성 스테레오타입 테스트와 여성 서사

- 여성 주조연 인물의 서사가 남성에게 종속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28편 중 9편(32.1%)이 해당



여성 인물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서사를 가지는 영화들은 남성 주인공의 아내이거나 딸 등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영화의 서사에 여성인물들이 서로 연대하는 서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편(21.4%)이 해당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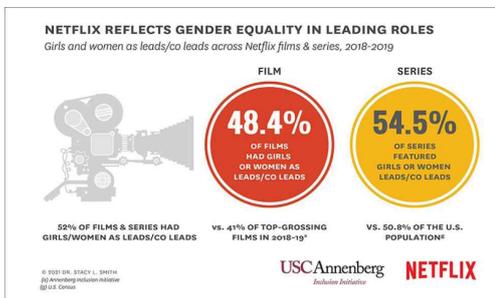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양상의 폭력을 거칠고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여성들이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출처: 조혜영, 백현지(2022). 2021년 한국 영화산업 성인지 통계. KOFIC 이슈페이퍼 2022_Vol.02

■ 여성서사의 개념

넷플릭스 다양성 리포트와 여성 서사 지표

- 크게 콘텐츠에 등장하는(on screen) 인물(characters)과 콘텐츠에 등장하지는 않지만(behind the camera) 전체적인 스토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제작 인력(기획, 제작, 감독, 작가)의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을 기반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
- 분석 대상은 넷플릭스 콘텐츠 중 2018~2019년 동안 미국에서 제작된 총 306편의 대본이 있는(scripted) 영어 픽션물(영화 126편, 드라마/시리즈 180편)



- 여성이 주인공을 맡고 있는 영화/드라마는 전체 영화/드라마 중 52%(영화 48.4%, 드라마/시리즈 54.5%). 이는 미국 내 박스오피스 상위 100개 영화에서 여성이 주인공을 맡은 비율(평균 41%)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
- 여성 주인공이 많이 등장한 이유를 핵심 제작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표1. 넷플릭스와 흥행 영화의 여성 주인공 비율: 제1주인공과 제2주인공을 중심으로

지표	2018	2019	평균
넷플릭스영화			
여성 제1/제2 주인공의 비율	46.4%	50.9%	48.4%
흥행영화			
여성 제1/제2 주인공의 비율	39%	43%	41%

넷플릭스 영화/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성(gender)

출처 : USC ANNE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홈페이지

출처: 김선아(2021). 넷플릭스 다양성 리포트와 국내 영화산업 성인지 비교. 익스퍼트 130호_2

■ 여성서사의 개념

여성 서사란

- 기존 관점: 여성이 서사 구조를 이끌어가는 스토리
- 벡델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전통적인 여성서사의 요건
 - ✓ 이름을 가진 두 명 이상의 여성이 등장하는가?
 - ✓ 그 두 명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가?
 - ✓ 그 대화의 주제가 남자 이외의 것인가?
- 전복적인 장르의 등장과 **여성 서사의 확장**
: 여성이 즐기는(향유하는) 스토리

“여성 서사를 벡델 테스트라든지 여성들만 등장하는 소설이라든지, 혹은 여성이 쓴 서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매뉴얼화할 수 없다

BL로 불리는 남성 동성 성애서사는 여성이 쓰고 향유한다. 남성이 여성들의 불거리가 되고 여성이 교환의 주체, 남성이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장르다. 할리퀸 로맨스 역시 여성에게는 해방적 장르일 수 있다. 할리퀸 문고의 쾌락은 할리퀸의 독서법칙을 즐기는 게 재밌어서다”

출처: 오혜진(2019. 6.20). 떠나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성 서사의 매혹과 곤혹.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2019 연속특강_여성 창작자x페미니즘x이미지'

03

여성 서사 콘텐츠와 이용자 특성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사례 중심으로”

■ 사례분석 대상 :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2021년 여름, 춤으로 패는 여자들이 온다"
여자들의 춤 싸움

독보적인 춤! 타고난 승부욕! 거침없는 스타일까지!
대한민국 스트릿 서열 1위를 넘어 글로벌 서열 1위를 노리는 8크루!
글로벌 K-dance의 성지가 될 '스트릿 파이터 클럽'에서 단 하나의 트로피를 거머쥘 우승 크루는 누가 될 것인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최종 우승 크루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총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여성 댄서들. (왼쪽부터) 가비, 모니카, 리 헤이, 효진초이, 허니제이, 노제, 아이키, 리정. 사진=CJENM 제공)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 방영일: 2021년 8월 24일~ 10월 26일
- 방영 채널: M.net
- 프로그램 내용: 여자 댄스 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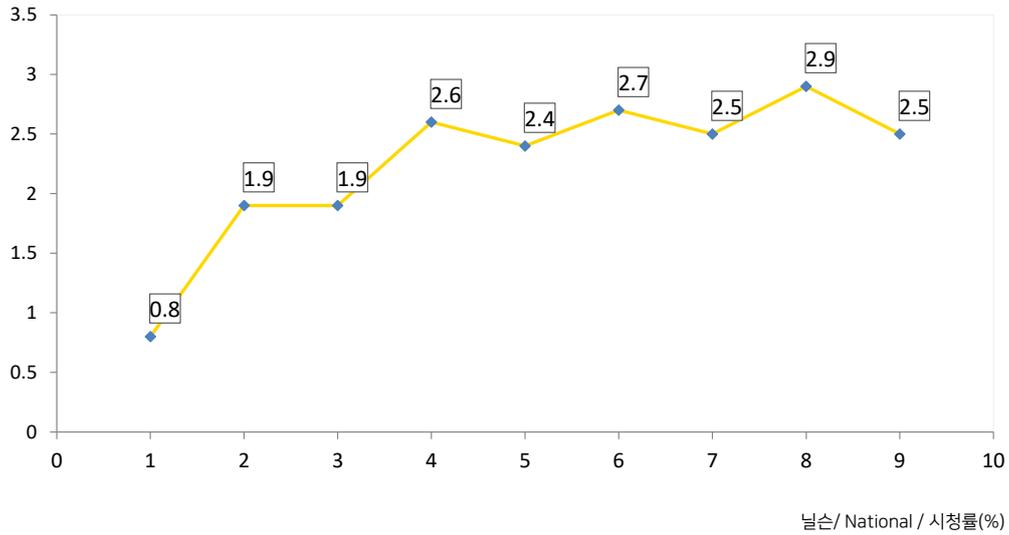


■ 여성 서사 콘텐츠로서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구분	항목	검증
벡델 테스트	✓ 이름을 가진 두 명 이상의 여성이 등장하는가?	×
	✓ 그 두 명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가?	×
	✓ 그 대화의 주제가 남자 이외의 것인가?	×
여성 스테레오 타입 테스트	✓ 여성이 전적으로 남성의 구출 혹은 구원에 의지하는가?	×
	✓ 여성의 행동이나 결단이 설득력 없이 소개되며 남성을 곤경에 빠뜨리는가?	×
	✓ 여성이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에서 구색 맞추기나 감초로 기능하는가?	×
	✓ 돌봄이 설득력 있는 서사 없이 여성의 당연한 의무나 본성으로 부여되는가?	×
	✓ 여성이 일차원적 이성애 로맨스의 대상으로만 기능하는가?	×
	✓ 과도하게 성애화된 자극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여성이 존재하는가?	×
	✓ 자기 서사 없이(범죄 등의)피해자로만 전시되는 여성이 존재하는가?	×

■ 시청률과 시청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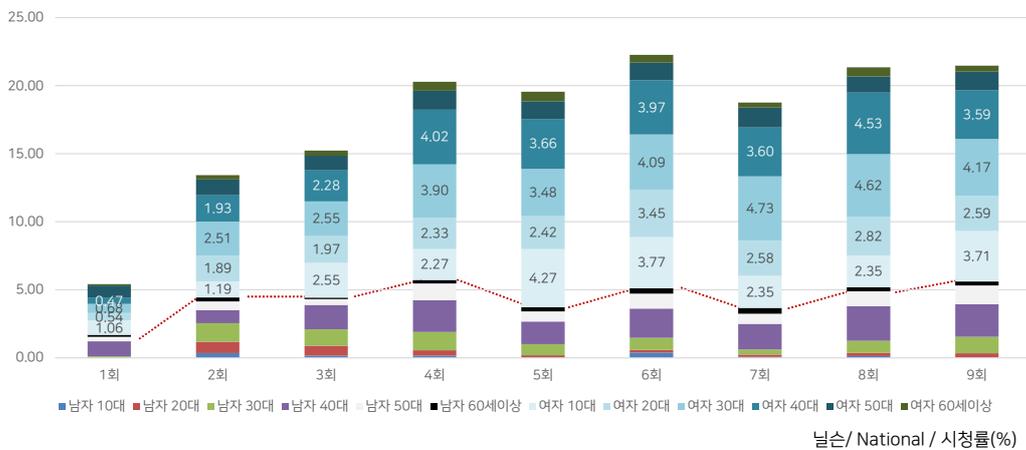
회차별 시청률 추이



■ 시청률과 시청층 분석

회차별 시청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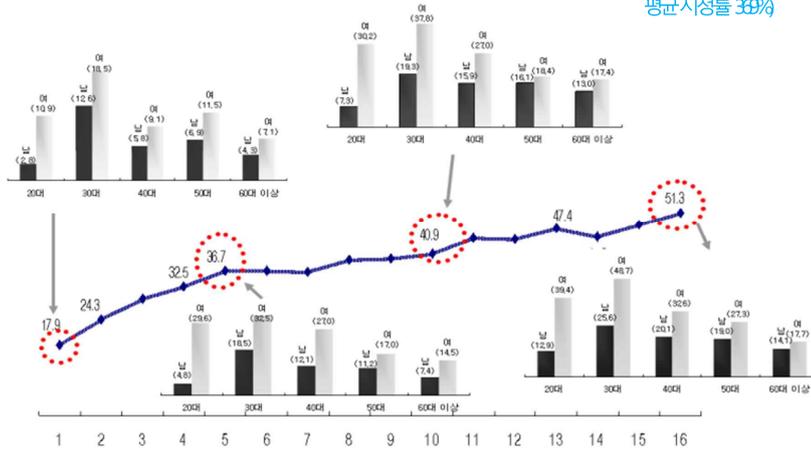
- 여성 시청층의 비중이 매우 높음
- 특히 30대 여성 시청층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음
- 5회 차(with)셀럽의 경우 10대 여성 시청률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음



■ 여성 서사 콘텐츠는 누가 이용하는가?

<30대 여성이 선택하는 콘텐츠에 주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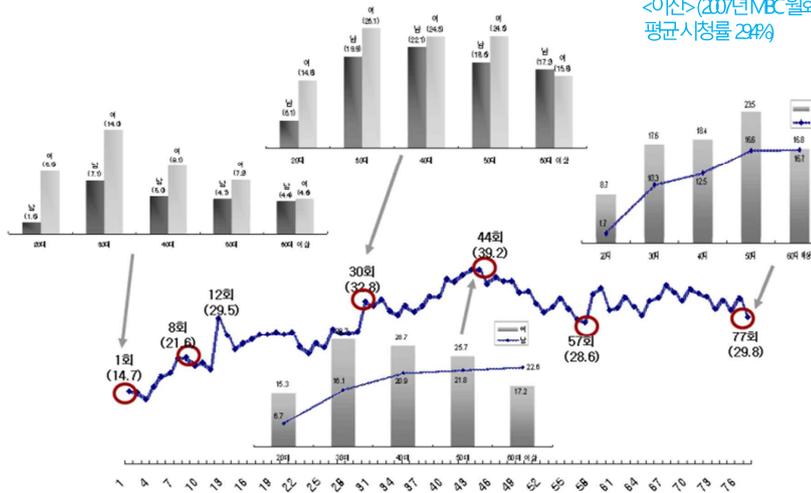
<내 이름은 김삼순> (2005년 MBC 수목드라마
평균 시청률 36%)



■ 여성 서사 콘텐츠는 누가 이용하는가?

<30대 여성이 선택하는 콘텐츠에 주목하자>

<아산> (2007년 MBC 월화드라마
평균 시청률 29%)



04

마무리를 대신하며: 여성 서사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망

1. 사회문화적 변화

점진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 점진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되면서 대중문화 제작과 소비의 여정에서도 이를 의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방학 특강에서 (웹툰을) 진짜 잘 그리는 고3 여자가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단편 인스타툰으로 그렸어요. 근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무책임하게 사서 며칠 뒤에 그냥 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된 고양이나 개를 주워놓은 다음에 바로 비 오는 날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를 낳고 나서 베이비 박스에다 버리는 장면이 마지막에 대사 없이 인더박스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그런 거였는데, 이 여학생이 무의식적으로 모든 캐릭터를 다 여자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문제 소지 있다.(중략)... 얘기하니까 그게 보인대요. **그럼 이걸 적절하게 성별을 섞자, 물론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 장면은 여자가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앞에 거를 적절하게 성별을 섞어서 무언가를 무책임하게 버리는 행위는 성별과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바뀌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K, 여성, 40대)”

“(○○○작품들) sns나 이런 데에서도 봤는데요. 지나가는 여고생 가방에 임신테스트기가 꽂혀 있는 걸 일부러 그리셨더라고요. 두 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표현을 하나.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조차 뭔가 그런 식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걸 누가 그렇게 꽂고 다니나. 실제랑 거리 괴리감이 있잖아요...**(중략)... 굳이 그런 걸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그 여고생이) 문란한 여성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표현하고 싶은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스토리 맥락상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그걸 왜 표현하려고 하는지...**(후략)...(H, 여성, 30대)”

출처: 한국만화가협회(2022). <웹툰 차별표현 대응방안 연구> 중 인터뷰 발췌

2 미디어 소비 환경의 변화와 취향 공동체의 확산

취향과 공유를 위한 장의 다변화

- 플랫폼과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취향 공동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장에서 경험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위문화로 인식되던 여성 서사도 뒤섞이며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배제되는 일련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류로 이동하는 여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음



3 콘텐츠 경쟁 환경

'재미 x 의식' 있는 콘텐츠와 가살아남는다

-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경쟁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 기존의 사회문화적 의식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명분으로 시작한 여성 서사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
- 1세대 페미니즘이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에 대한 사회운동의 성격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도모했다면 이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서사가 없어도 재미있는 콘텐츠이거나 주체적 소비자로서의 여성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에 주목해야 하는 시대가 왔음
- 여성 서사의 장을 확장하는 것 또한 여성 서사의 경제적 가치를 확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여성 서사가 비즈니스가 되는 이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감사합니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